Chungbuk Studies Institute

충북학누리

SPRING | 2025 VOL. 18

옥천군 동이면 유채꽃밭

2025년 제27집

『충북학』 원고모집

충북학연구소에서는
지역학으로서 가치 있는 자료를 발굴, 연구하기 위해 매년 『충북학』을 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 『충북학』 제27집의 원고를 모집하오니 많은 투고 바랍니다.

충청북도의 역사, 문화, 사회, 예술 등을 다룬 글을 보내주시면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충북학』 제27집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원고 내용 충청북도의 역사, 문화, 사회, 예술 등 전 분야

분야	분량
논문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
비논문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

모집 기간 2025년 4월 1일 ~ 9월 30일

제출 방법 이메일
cbc9236@cri.re.kr
문의: 043-220-1161~3

* 원고는 한글 파일로 제출해 주세요.
* 채택된 원고에 한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목차

SPRING 2025
Vol.18

4 충북의 독립운동가 '다시 보기'
광복 80주년, 591 + ( ) | 김호진

27 충북의 방언
사람과 언어 그리고 충북 방언의 형성 | 박경래

35 충북 서예의 흐름
영국사 원각국사비와 법주사 자정국존비의 서풍 | 이동원

50 충북 역사 기행
연원도(連原道) 따라가기 · 5 | 김희찬

61 문화유산 활용 현장
철학이 있는 삽질, 〈신항서원 휴休식識시대〉 7년 | 김해숙

69 충북학연구소 소식

발행처 충북학연구소
총괄 임기현
기획·편집 최병철, 정민, 안현진
통권 18호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
홈페이지 http://csi.cri.re.kr
디자인 (주)픽셀즈
발행일 2025. 3. 31.

충북학연구소
Chungbuk Studies Institute

『충북학누리』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01. 충북의 독립운동가 '다시 보기'

광복 80주년, 591 + ( )

김호진(충북대학교 강사)

충북의 독립운동가를 기억하기 위한 10년 전의 노력

광복 70주년이던 2015년에 고(故) 박걸순 교수를 위시한 충북대학교 한국근현대사연구팀과 『충북일보』는 11개월간 「충북 독립운동가 열전」이라는 기획 기사를 연재하였다. 이 기획 연재는 충북 출신 독립운동가의 생애와 독립운동을 열전 형식으로 소개하는 시리즈이다. 이를 통해 충북도민들이 충북 출신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사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10년이 지난 현재도 블로그 등 다양한 인터넷 소통 창구에서 인용될 정도로 지역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다.

필자도 18명의 선후배와 함께 충북대학교 한국근현대사연구팀의 일원으로 이 기획 기사에 참여하였다. 주말 전공강의실에 모여 작성한 글을 가지고 열띤 논의를 했던 기억이 난다. 은사께서는 '충북 독립운동가 열전'의 연재를 마치고 『충북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여기에는 연재를 진행할 당시의 모습이 잘 남아 있다.

'매달 연재 담당자가 원고를 써가지고 오면 연구팀 전원이 참여하는 윤독회를 열어 의견을 교환하고 원고를 수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연구자가 내게 호되게 꾸중을 들으면서도 잘 감내해 주었다.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필자는 그 누구보다도 많은 꾸지람을 들은 제자였다. 글 쓰는 재주가 영특하지도 않은데, '엉덩이마저 가벼워' 글의 완성도가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그때 당시 은사의 꾸중이 아직도 귓가에 선명하다.

필자를 비롯해 제자들을 독려하며 기획 기사의 연재를 이끌었던 박걸순 교수는 충북 출신 독립운동가를

기사 주제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 역사를 읽는 방법 중 인물사를 읽는 것은 무척이나 역동적이고 흥미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근현대사를 살다간 인물의 궤적을 더듬는 것은, 격동의 순간을 현장처럼 감동을 고스란히 느끼게 된다. 그 가운데에서도 독립운동가의 생애와 사상, 고뇌와 사색은 우리들에게 미래의 삶의 좌표가 되기에 충분하다. 그들의 치열했던 삶을 통해 이 시대가 안고 있는 과제를 극복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
>
> 『충북일보』, 2015년 2월 17일, 「충북의 독립운동가」.

'그들의 치열했던 삶'으로 '이 시대가 안고 있는 과제를 극복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지혜'를 배울 것이라고 한 부분이 특히 주목된다. 이때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문제로 학계뿐만 아니라 일반이 혼란스러웠던 시기이다. 다행히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통한 뉴라이트 계열의 식민사관 이식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실패하였다. 하지만 그 당시 은사께서 지적한 '시대의 과제'는 지금도 유효한 것만 같다.

「충북 독립운동가 열전」은 개관에 해당하는 '충북의 독립운동가(2015.02.17.)'를 시작으로 기획 의도, 후일담 등을 인터뷰한 것(2015.12.20.)까지 총 46회의 기사가 연재되었고, 43명의 충북 출신 독립운동가가 소개되었다. 이 기획 기사에서 소개된 충북 출신 독립운동가 43명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5년 「충북 독립운동가 열전」에 소개된 충북 출신 독립운동가 43명(가나다 순)

이름	포상 훈격	이름	포상 훈격	이름	포상 훈격	이름	포상 훈격
곽재기	독립장	서상열	독립장	유석현	독립장	정태희	독립장
곽중규	독립장	손병희	독립장	우덕순	독립장	조동호	독립장
권동진	대통령장	손승억	독립장	이광	독립장	채찬	독립장
권병덕	대통령장	송병순	독립장	이명상	독립장	최성천	독립장
권순명	독립장	신건식	독립장	이상설	대통령장	최욱영	독립장
권용일	독립장	신규식	대통령장	이중봉	독립장	한봉수	독립장
김상태	독립장	신석구	대통령장	이형우	독립장	홍범식	독립장
민강	독립장	신팔균	독립장	전좌한	독립장	홍사구	독립장
박기성	독립장	신현규	독립장	정순만	독립장	홍진	독립장
박여성	독립장	신홍식	대통령장	정운경	독립장	황학수	독립장
백남규	독립장	연병호	독립장	정춘서	독립장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5년 「충북 독립운동가 열전」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공적을 인정받은 충북 출신 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연재가 진행되었다. 특히, 대한민국장·대통령장·독립장 등 상위 3등급에 해당하는 훈격을 받은 인물로 제한하였다. 그 중에는 권동진·손병희·우덕순·이형우처럼 본적이 충북이 아닌 인물도 포 함되었는데, 이들은 관련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충북과 연결고리를 확인하였다.

독립유공자의 훈격은 대한민국장·대통령장·독립장·애국장·애족장 등 5개 건국훈장뿐만 아니라 건국포장·대통령표창까지 포함하여 7개 등급으로 나뉘어 있다. 하지만 2015년 연재된 「충북 독립운동가 열전」에서는 여건상 독립장 이상을 받은 독립유공자만 소개하였다. 『충북일보』에서 이 기획 연재를 위해 충분한 기간과 지면을 제공했지만, 충북 출신 독립유공자 443명(연재를 시작할 당시)을 모두 다루기에는 여전히 부족하였다. 게다가 독립유공자 중에는 생애와 독립운동을 기사로 쓸 정도로 자료가 충분치 못한 경우도 많았다.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독립장 이상으로 연재 대상을 한정할 수 밖에 없었다. 물론, 훈격은 독립운동가 개인을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 연금 지급 등 행정적인 이유로 불가피하게 나눠진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실은 「충북 독립운동가 열전」의 연재를 시작할 때도 박걸순 교수가 특히 강조했던 부분인데, 10년 후인 지금도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

건국훈장 종류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10년이 지난 후 '다시 보는' 충북의 독립운동가

「충북 독립운동가 열전」의 연재로부터 10년이 지난 2025년 현재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경술국치 100주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등을 지나 어느덧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에 이른 것이다. 광복 80주년은 현재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감격의 순간을 되새기는 해가 될까? 아니면 일제강점기의 고난과 시련을 다시금 생각하는 해가 될까? 그것도 아니라면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쉬는 날일까? 여러 선학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가 대중과 소통하는 학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2025년 「충북의 독립운동가 '다시 보기'」는 이러한 이유로 시작되었다.

10년이 지나는 동안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 충북 출신 독립유공자는 443명에서 591명(2025년 3월 기준)으로 148명이 늘어났다. '충북 독립운동가 열전'이 연재 중이던 2015년에도 45명이나 추가로 서훈되었다. 2016~2025년 동안 서훈된 충북 출신 독립유공자 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6~2025년 포상된 충북 출신 독립유공자 수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인원	5	11	9	14	4	27	15	8	8	2	103

이 가운데 눈에 띄는 연도는 2019·2021·2022년이다. 각각 14·27·15명의 독립유공자가 서훈받아 다른 연도보다 그 수가 많다. 이는 2018년 포상심사 기준이 완화된 영향이라 하겠다. 2018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한 해 앞둔 시기였다. 축제를 앞둔 분위기 속에서 포상심사 기준이 완화되었고, 그 영향으로 2019~2022년 4년 동안 60명의 충북 독립운동가가 공적을 인정받았던 것이다.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보내고 광복 80주년인 현재, 더 많은 독립운동가가 발굴되고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2025년은 아직 2명만 서훈받았지만 앞으로 '광복절'과 '순국선열의 날' 계기 포상이 남아 있다. 앞으로 남은 2번의 계기 포상 때 더 많은 충북의 독립운동가가 공적을 인정받기를 기원한다.

10년이 지나는 동안 '가짜 독립운동가'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기존 독립유공자의 행적을 재검토하고 친일 등 흠결이 확인되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서훈 박탈을 추진하였다. 친일 행적이

확인된 인촌 김성수가 서훈을 박탈당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일제에 적극적으로 부역한 친일파, 동지를 팔아먹은 밀정 등 '가짜 독립운동가'를 찾아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서훈을 박탈하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2015년 「충북 독립운동가 열전」에서 충북 출신 독립유공자를 모두 다루기에는 지면과 연재 기간이 부족하였다. 불가피하게 독립장 이상의 독립유공자로 연재 대상을 한정했던 이유이다. 2025년 「충북의 독립운동가 '다시 보기'」는 「충북 독립운동가 열전」의 속편을 지향하는데, 연재 횟수·기간 등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제약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전에 소개하지 않은 인물을 중심으로 충북의 독립운동사를 풀어나가려 한다. 크게 3개의 주제로 충북 출신 독립운동가를 살펴보는 한편, 부록에 표를 넣어 본문에서 다루지 못한 인물을 소개할 것이다. 이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를 바란다.

충북의 독립운동가 '다시 보기'에서 소개할 사람들

필자는 다음의 문제 의식을 갖고 「충북의 독립운동가 '다시 보기'」를 풀어나가겠다. 먼저,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10년 전 「충북 독립운동가 열전」에 제대로 소개되지 못한 인물이 많다. 애국장과 애족장을 받은 충북 출신 독립유공자가 이에 해당한다.

유자명(출처 : 독립기념관)

최명수(출처 : 공훈전자사료관)

예컨대, 곽중규의 부친으로 구한말 의병전쟁에 뛰어든 곽준희가 있으며, 유인석 휘하에 있으면서 의병으로 활약한 원용팔이 있다. 또한, 납세 거부 투쟁 등을 주도한 후 단식 자결한 김제환이 있으며, 경술국치 소식에 항거하기 위해 자결을 선택한 조장하가 있다. 중국에서 의열투쟁에 참여하고 신채호가 '조선혁명선언'을 집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 유자명과, 대한통의부·정의부 등에서 요직을 맡으며 만주 독립군을 이끌었던 최명수도 빼놓을 수 없다. 그 밖에도 수많은 충북 출신 독립운동가가 있다.

「충북의 독립운동가 '다시 보기'」는 필자의 10년 전 오류를 바로잡는 기회도 된다. 2015년 필자는 충주 신니면 만세시위를 주도했던 손승억과, 경북 일대에서 신출귀몰한 유격전을 전개했던 의병장 최성천을 담당하였다. 그러면서 최성천이 '의병장 한용수의 뒤를 잇는 뜻에서 한명만이라는 이명을 사용했다'고 기사를 작성하였다. 한명만은 충북 제천 출신으로 2009년 애국장에 추서된 인물인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체 기사를 마무리하여 독자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차마 입 밖으로 꺼내놓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끄집어내서 재논의하여 오해를 풀고 오류를 바로잡고자 한다. 그것이 연구자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충북 각지에서 3·1운동에 참여했다가 모진 감옥생활을 겪거나 일제의 총칼에 목숨을 잃은 이들도 더 많이 소개해야 한다. 1919년 수많은 충북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일제를 상대로 항거했음을 알리기 위함이다. 3·1운동은 국내외 각지의 한국인들이 대규모로 전개한 독립운동으로, 한국인의 항일의식과 독립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운동으로 평가된다. 3·1운동이 한국 독립운동의 분수령으로 정의되는 이유 중 하나이다. 3·1운동의 저력은 수많은 한국인들이 전개한 대규모 항거라는 데 있다. 한 인물의 영웅적 행동이 아니라, 농민·상인·학생 및 여성 등 보통 사람들의 항거라는 게 중요 포인트이다.

3·1운동에 참여한 충북 출신 독립유공자 중 독립장 이상을 제외하고 애국장은 25명, 애족장은 85명, 건국포장은 12명, 대통령표창은 102명으로 총 224명이다. 이는 전체 '충북 출신 독립유공자' 591명(2025년 3월 기준) 중 37.9%에 해당한다. 이들의 다양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소개하여 '거족적·거국적'으로 일어난 3·1운동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3·1운동과 관련한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어 극히 일부의 사람만 소개하는 한계가 극복되기를 바란다.

건국포장·대통령표창에 서훈된 독립유공자도 주목해야 한다. 두 훈격은 독립유공자 포상 등급 중 가장 말단의 것에 해당하지만, 충북 출신 독립유공자 중 비교적 많은 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2025년 3월 현재 기준, 충북 출신 독립유공자 중 건국포장·대통령표창 서훈자는 182명으로 전체 591명의 30.79%이다. 건국포장·대통령표창에 서훈된 독립유공자를 살펴보는 것도 더 많은 독립운동가를 소개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더불어 충북 출신 독립운동가들이 보인 독립운동의 양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정의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청주 중앙공원 내 대한민국 독립기념비

광복 80주년을 맞은 2025년, 필자는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라는 거대한 여정에서 이제야 '첫걸음을 뗀' 초행자에 불과하다. 걸음은 더딘데 저 산을 빨리 넘으려는 의욕만 강하다. 그런 조급함에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의 미래에 대해 생각한 적이 있다. 어떻게 하면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었다. 이미 여러 선학이 주장한 바를 재탕하는 수준이었지만, 독립운동가들이 한국인들의 '인류 보편적 가치'를 되찾기 위해 일제와 싸웠음을 규명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충북 출신 독립운동가들이 펼친 활동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그들이 지향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충북 출신 독립유공자 명단(2025년 3월 현재, 가나다 순)

이름	한자명	생몰년	운동계열	포상년도	포상훈격	본적
강구원	姜龜遠	1890 ~ 1956	3.1운동	2007	대통령표창	음성
강대길	姜大吉	1899 ~ 1972	3.1운동	2007	대통령표창	음성
강수원	姜遂元	1877 ~ 미상	의병	2015	애국장	제천
강순희	姜順熙	1868 ~ 1929	의병	1995	애국장	제천
강영학	姜永學	1864 ~ 미상	의병	2015	애족장	충주
경권중	慶權重	1871 ~ 1920	3.1운동	1991	애국장	괴산
경석조	慶錫祚	1881 ~ 1957	만주방면	1990	애족장	괴산
고한주	高漢周	1895 ~ 1927	3.1운동	1993	애족장	옥천
공재익	孔在翊	1878 ~ 1949	3.1운동	1990	애족장	옥천
곽재기	郭在驥	1893 ~ 1952	의열투쟁	1963	독립장	청주
곽준희	郭俊熙	1870 ~ 1940	의병	1996	애국장	옥천
곽중규	郭重奎	1891 ~ 1950	임시정부	1992	독립장	옥천
곽중선	郭重善	1907 ~ 1935	중국방면	1992	애족장	옥천
곽춘근	郭春根	1879 ~ 미상	의병	2014	애족장	충주
구열조	具悅祖	1884 ~ 1941	3.1운동	1992	대통령표창	보은
구창회	具昌會	1897 ~ 미상	국내항일	2021	애족장	괴산
권갑득	權甲得	1893 ~ 미상	3.1운동	2021	애족장	괴산
권명상	權命相	1883 ~ 1951	국내항일	1990	애족장	제천
권병덕	權秉悳	1868 ~ 1943	3.1운동	1962	대통령장	청주
권순명	權順明	1876 ~ 미상	의병	1995	독립장	제천
권영선	權永先	미상 ~ 1908	의병	2001	애국장	기타
권용달	權用達	1887 ~ 미상	의병	2014	애족장	기타
권용일	權用佾	1884 ~ 1971	의병	1963	독립장	제천
권용창	權用昌	1886 ~ 1950	의병	1990	애족장	제천
권재학	權在學	1879 ~ 1938	3.1운동	1990	애족장	음성
권종필	權鐘弼	1885 ~ 1965	3.1운동	1992	대통령표창	제천
권춘경	權春京	1886 ~ 미상	의병	2015	애족장	옥천
권태응	權泰應	1918 ~ 1951	학생운동	2005	대통령표창	충주
권호선	權灝善	미상 ~ 1897	의병	1995	애국장	기타
권희목	權熙穆	1891 ~ 1930	3.1운동	1990	애족장	제천
김경백	金敬伯	1876 ~ 1939	의병	2021	대통령표창	보은
김교환	金敎煥	1883 ~ 1955	3.1운동	1994	애족장	괴산
김국주	金國柱	1891 ~ 1957	만주방면	1990	애족장	충주
김규철	金奎喆	1881 ~ 1929	의병	1990	애국장	단양
김규흥	金奎興	1872 ~ 1936	중국방면	1998	애국장	옥천
김기출	金奇出	1899 ~ 미상	국내항일	2015	애국장	보은
김달년	金達年	1893 ~ 1973	3.1운동	2005	대통령표창	음성
김동억	金東億	1882 ~ 미상	3.1운동	2008	대통령표창	괴산

이름	한자	생몰년	운동계열	포상년도	포상훈격	본적
김만복	金萬卜	1878 ~ 1949	의병	2013	애족장	기타
김명식	金明埴	1878 ~ 미상	의병	2014	애족장	영동
김명심	金明心	1881 ~ 미상	의병	1995	애국장	청주
김명진	金明鎭	1887 ~ 미상	3.1운동	2012	건국포장	괴산
김목여	金木汝	1871 ~ 미상	의병	2024	대통령표창	제천
김복진	金復鎭	1901 ~ 1940	국내항일	1993	애국장	영동
김상옥	金相玉	1880 ~ 미상	의병	2024	애족장	단양
김상준	金相俊	1887 ~ 미상	미주방면	2024	건국포장	진천
김상태	金尙台	1862 ~ 1911	의병	1963	독립장	단양
김상한	金商翰	1842 ~ 1917	의병	1990	애국장	제천
김성관	金聖寬	1864 ~ 1907	의병	2003	애국장	청주
김성권	金成權	1870 ~ 미상	의병	2018	애족장	옥천
김성환	金成煥	1875 ~ 1958	국내항일	2019	대통령표창	청주
김성흥	金聖興	1870 ~ 1909	의병	2017	애국장	청주
김수동	金壽童	1885 ~ 1910	의병	1995	애국장	기타
김수백	金壽伯	1896 ~ 1973	3.1운동	1997	애족장	괴산
김수사	金修史	1912 ~ 1984	중국방면	1990	애족장	청주
김수원	金壽遠	1882 ~ 1936	3.1운동	1990	애족장	영동
김순구	金舜九	1867 ~ 1919	3.1운동	1991	애국장	옥천
김순길	金順吉	1889 ~ 1977	3.1운동	2013	대통령표창	음성
김순철	金舜哲	1892 ~ 1939	만주방면	2004	애족장	영동
김승림	金升林	1891 ~ 1952	3.1운동	1990	애족장	영동
김언배	金彦培	1890 ~ 1952	국내항일	2023	애국장	제천
김영근	金永根	1879 ~ 미상	의병	2015	건국포장	보은
김영락	金榮洛	1888 ~ 미상	만주방면	2015	애족장	충주
김영익	金榮翼	1898 ~ 1957	3.1운동	1997	대통령표창	음성
김용선	金容善	1895 ~ 1963	3.1운동	1990	애족장	영동
김용섭	金用燮	1894 ~ 1965	3.1운동	1992	대통령표창	보은
김용응	金鏞應	1869 ~ 1959	국내항일	2019	대통령표창	괴산
김용이	金龍伊	1889 ~ 1958	3.1운동	1990	애국장	옥천
김용찬	金容瓚	1903 ~ 1937	국내항일	1995	애족장	영동
김운용	金云用	1896 ~ 미상	국내항일	2015	애족장	옥천
김원식	金遠植	1885 ~ 미상	임시정부	2014	애족장	충주
김유준	金有俊	1878 ~ 미상	의병	2013	애족장	보은
김윤학	金潤學	미상 ~ 1908	의병	2001	애국장	기타
김은배	金殷倍	1891 ~ 1971	3.1운동	1992	대통령표창	충주
김을경	金乙卿	1899 ~ 1965	3.1운동	1990	애족장	음성
김응선	金應善	1881 ~ 1944	만주방면	1991	애국장	옥천
김의대	金義大	1892 ~ 1925	3.1운동	1990	애족장	괴산

이름	한자	생몰년	운동계열	포상년도	포상훈격	본적
김의현	金義玄	1880 ~ 1947	3.1운동	1990	애족장	괴산
김인수	金仁洙	1899 ~ 1961	3.1운동	2001	애족장	괴산
김인수	金仁洙	1887 ~ 1919	3.1운동	1991	애국장	옥천
김인준	金仁俊	1889 ~ 미상	3.1운동	2021	대통령표창	괴산
김일곤	金日坤	1880 ~ 1946	3.1운동	1992	대통령표창	괴산
김재갑	金在甲	1880 ~ 1926	3.1운동	1990	애족장	청주
김재형	金在衡	1890 ~ 1966	3.1운동	1990	애족장	청주
김정환	金政煥	1878 ~ 1927	의열투쟁	1991	애국장	보은
김정환	金貞煥	1895 ~ 1964	3.1운동	2009	대통령표창	청주
김제환	金濟煥	1867 ~ 1916	의열투쟁	1990	애국장	청주
김종옥	金鍾玉	1866 ~ 1936	3.1운동	1992	대통령표창	괴산
김종옥	金鍾玉	미상 ~ 1907	의병	1995	애족장	청주
김지수	金芝洙	1880 ~ 1961	3.1운동	1993	대통령표창	옥천
김진규	金振奎	미상 ~ 1909	의병	2014	애국장	기타
김진목	金鎭睦	1899 ~ 1990	미주방면	1990	애족장	제천
김진환	金振煥	1879 ~ 1934	3.1운동	2009	애족장	청주
김찬호	金燦鎬	1908 ~ 1959	학생운동	2019	대통령표창	청주
김천문	金千文	1875 ~ 1945	미주방면	2015	대통령표창	제천
김천복	金千福	1881 ~ 미상	의병	2015	건국포장	청주
김철수	金轍洙	1878 ~ 1919	3.1운동	1991	애국장	옥천
김춘경	金春京	1885 ~ 1944	3.1운동	2008	대통령표창	괴산
김춘삼	金春三	1879 ~ 1945	의병	1990	애국장	제천
김태규	金泰珪	1896 ~ 1962	국내항일	1990	애족장	괴산
김태규	金泰奎	1895 ~ 1974	3.1운동	1992	애족장	영동
김태수	金台洙	1904 ~ 1950	국내항일	2006	애족장	영동
김태희	金泰熙	1877 ~ 1936	계몽운동	1990	애족장	청주
김평근	金平根	1870 ~ 1924	의병	1996	애족장	영동
김한경	金漢京	1877 ~ 미상	의병	2016	애국장	제천
김한주	金漢洲	1876 ~ 1962	3.1운동	1993	애족장	옥천
김해룡	金海龍	1895 ~ 1969	3.1운동	2006	대통령표창	음성
김현구	金鉉九	1891 ~ 1967	미주방면	1995	애국장	옥천
김현습	金顯習	1887 ~ 1963	의병	2019	애족장	제천
김호상	金浩相	1894 ~ 1927	3.1운동	1990	애족장	청주
김홍	金洪	1879 ~ 미상	3.1운동	2010	대통령표창	옥천
김홍락	金洪樂	1922 ~ 2000	일본방면	1992	애족장	괴산
김화서	金化西	1891 ~ 미상	3.1운동	2021	대통령표창	음성
김화서	金化西	1886 ~ 미상	의병	2014	애국장	충주
김흥배	金興培	1901 ~ 1986	3.1운동	2022	대통령표창	청주
김흥서	金興西	1870 ~ 미상	의병	2024	애국장	영동

이름	한자	생몰년	운동계열	포상년도	포상훈격	본적
김희영	金熙暎	1893 ~ 1975	국내항일	2010	건국포장	충주
남계홍	南啓弘	1870 ~ 미상	3.1운동	2006	대통령표창	진천
남도경	南道京	1884 ~ 미상	의병	2014	애국장	제천
남도학	南道學	1900 ~ 1969	3.1운동	1990	애족장	영동
남백우	南百祐	미상	계몽운동	1990	애족장	청주
남상렬	南相烈	1881 ~ 1965	만주방면	1993	애족장	청주
남상은	南相殷	1886 ~ 1951	3.1운동	1992	대통령표창	제천
남정순	南正淳	1879 ~ 미상	의병	2024	애족장	영동
남필원	南泌元	미상	의병	1995	애족장	단양
노도원	盧道元	1891 ~ 1919	3.1운동	1990	애국장	괴산
단경옥	段慶玉	1894 ~ 1943	3.1운동	1990	애족장	기타
류재영	柳在英	1889 ~ 1945	국내항일	2008	건국포장	옥천
류필열	柳弼烈	1905 ~ 1937	국내항일	2020	대통령표창	청주
맹선섭	孟宣燮	1866 ~ 1923	의병	1995	대통령표창	보은
모명순	牟明順	1879 ~ 미상	의병	2014	애족장	괴산
문일석	文一石	1886 ~ 1945	의병	2024	애족장	단양
민강	閔橿	1883 ~ 1931	국내항일	1963	독립장	청주
민금봉	閔今奉	1912 ~ 1946	학생운동	2019	대통령표창	청주
민병철	閔丙哲	1900 ~ 미상	3.1운동	2023	대통령표창	음성
민영로	閔泳魯	1919 ~ 1950	국내항일	2006	대통령표창	괴산
민영팔	閔泳八	1874 ~ 1926	의병	2010	애족장	단양
민영학	閔泳學	1916 ~ 1945	인도네시아	2008	애국장	영동
민인숙	閔仁淑	1912 ~ 1975	학생운동	2019	대통령표창	음성
민철훈	閔喆薰	미상 ~ 1896	의병	1995	애국장	미상
민한식	閔漢植	1876 ~ 1915	의병	2006	애국장	영동
박기성	朴基成	1907 ~ 1991	광복군	1963	독립장	진천
박기순	朴基順	미상	의병	2022	애국장	괴산
박내규	朴來奎	1885 ~ 1942	3.1운동	2014	애족장	영동
박내명	朴來明	1895 ~ 1970	3.1운동	2022	애족장	괴산
박덕여	朴德汝	미상 ~ 1908	의병	2005	애국장	청주
박도철	朴道哲	1884 ~ 1919	3.1운동	2021	애국장	진천
박동희	朴東羲	1896 ~ 1924	3.1운동	2018	대통령표창	옥천
박두업	朴斗業	1898 ~ 1949	3.1운동	1992	애족장	영동
박득용	朴得用	1887 ~ 미상	의병	2024	대통령표창	제천
박만하	朴萬夏	1879 ~ 1951	3.1운동	2010	대통령표창	옥천
박무병	朴武柄	1887 ~ 1979	국내항일	1990	애족장	청주
박반문	朴扳文	1851 ~ 1907	의병	2003	애국장	청주
박병철	朴炳喆	1901 ~ 1946	3.1운동	1995	대통령표창	음성
박봉래	朴鳳來	1870 ~ 1954	국내항일	2000	대통령표창	청주

이름	한자	생몰년	운동계열	포상년도	포상훈격	본적
박봉석	朴奉石	1877 ~ 1932	3.1운동	1992	대통령표창	괴산
박석업	朴錫業	1888 ~ 미상	3.1운동	2022	대통령표창	괴산
박선영	朴先榮	1925 ~ 2009	학생운동	1990	애족장	청주
박승하	朴勝夏	1900 ~ 1973	3.1운동	1995	대통령표창	진천
박여성	朴汝成	1860 ~ 1908	의병	1990	독립장	제천
박영록	朴永綠	1896 ~ 1975	3.1운동	2005	대통령표창	음성
박용희	朴容羲	1884 ~ 1959	문화운동	1990	애국장	기타
박우양	朴遇陽	1912 ~ 미상	학생운동	2023	대통령표창	음성
박원근	朴源根	1912 ~ 1950	국내항일	2009	애족장	보은
박원보	朴元甫	1890 ~ 1957	3.1운동	1990	애족장	영동
박일초	朴日楚	1882 ~ 미상	만주방면	2011	애족장	미상
박재복	朴在福	1918 ~ 1998	국내항일	2006	애족장	영동
박재호	朴在浩	1876 ~ 1947	3.1운동	1990	애족장	옥천
박제성	朴濟成	1902 ~ 1970	3.1운동	1995	대통령표창	음성
박제우	朴齊宇	1857 ~ 1930	3.1운동	2009	대통령표창	청주
박종규	朴宗奎	1871 ~ 미상	의병	2015	애국장	옥천
박종섭	朴鍾燮	1873 ~ 미상	의열투쟁	2015	애족장	옥천
박준규	朴俊圭	1863 ~ 1919	3.1운동	1991	애국장	청주
박진양	朴晋陽	1888 ~ 미상	의병	2015	애국장	단양
박찬규	朴贊圭	1928 ~ 2019	광복군	2000	애족장	청주
박철동	朴喆東	1915 ~ 1941	중국방면	1993	애국장	미상
박치양	朴致良	1878 ~ 미상	의병	2014	애족장	청주
방재구	方在矩	1900 ~ 미상	3.1운동	2005	대통령표창	단양
배민수	裵敏洙	1897 ~ 1968	3.1운동	1993	애국장	청주
배복룡	裵福龍	1874 ~ 미상	의병	2015	애족장	충주
배용석	裵用石	1899 ~ 1926	3.1운동	1990	애족장	옥천
백광필	白光弼	1899 ~ 미상	3.1운동	2018	애족장	청주
백낙천	白樂天	1883 ~ 미상	의병	2013	애족장	기타
백남규	白南奎	1884 ~ 1970	의병	1963	독립장	충주
백선옥	白先玉	1890 ~ 1932	3.1운동	2022	대통령표창	진천
백순규	白順奎	1865 ~ 미상	3.1운동	2008	대통령표창	음성
백인섭	白仁燮	1887 ~ 미상	의병	2015	애국장	옥천
백치중	白致重	미상 ~ 1908	의병	2001	애국장	충주
변영봉	卞榮鳳	1886 ~ 1952	3.1운동	2013	대통령표창	청주
서상경	徐相庚	1900 ~ 1962	문화운동	1990	애국장	충주
서상렬	徐相烈	1856 ~ 1896	의병	1963	독립장	제천
서정기	徐廷夔	1898 ~ 1950	문화운동	1990	애국장	기타
서정렬	徐正烈	1882 ~ 1944	3.1운동	1995	건국포장	청주
서정오	徐廷五	1879 ~ 1939	3.1운동	2009	대통령표창	음성

이름	한자	생몰년	운동계열	포상년도	포상훈격	본적
석창문	石昌文	1886 ~ 1908	의병	1991	애국장	보은
성규원	成奎垣	1862 ~ 1927	3.1운동	1995	애족장	청주
성만리	成萬里	1911 ~ 1974	중국방면	1990	애국장	괴산
성축용	成丑鏞	1923 ~ 미상	학생운동	2005	대통령표창	청주
성하식	成夏植	1878 ~ 1958	만주방면	1990	애족장	영동
손명희	孫明熙	1907 ~ 1966	학생운동	2024	대통령표창	괴산
손순흥	孫順興	1908 ~ 1956	국내항일	1995	애족장	영동
손승억	孫承億	1893 ~ 1934	3.1운동	1968	독립장	기타
손일만	孫一萬	1901 ~ 1966	3.1운동	2020	대통령표창	옥천
손재순	孫在順	1886 ~ 미상	만주방면	2011	애국장	청주
송능식	宋能植	1898 ~ 1963	3.1운동	1996	대통령표창	괴산
송덕빈	宋德彬	1898 ~ 1955	3.1운동	1992	대통령표창	보은
송병순	宋秉珣	1839 ~ 1912	계몽운동	1977	독립장	영동
송석봉	宋錫奉	1897 ~ 1972	3.1운동	2008	대통령표창	음성
송암우	宋岩于	1897 ~ 1959	국내항일	2008	애족장	옥천
송은헌	宋殷憲	1877 ~ 1946	의병	1995	건국포장	보은
송인식	宋寅植	1884 ~ 1959	3.1운동	1993	대통령표창	음성
송태현	宋台鉉	1874 ~ 1945	3.1운동	2005	대통령표창	청주
송헌준	宋憲俊	1884 ~ 미상	의병	2016	애족장	청주
신강면	辛康勉	1896 ~ 1951	3.1운동	1990	애족장	괴산
신건식	申健植	1889 ~ 1963	임시정부	1977	독립장	청주
신경구	申敬求	1887 ~ 1948	3.1운동	1990	애족장	청주
신광균	申光均	1883 ~ 미상	3.1운동	2011	대통령표창	청주
신광묵	辛光黙	1872 ~ 1949	의병	1997	건국포장	단양
신규식	申奎植	1880 ~ 1922	임시정부	1962	대통령장	청주
신기영	申基永	1858 ~ 1907	의병	2001	애국장	기타
신달용	申達用	1889 ~ 1954	3.1운동	2021	대통령표창	진천
신백우	申伯雨	1889 ~ 1962	계몽운동	1990	애족장	청주
신상희	申相熙	1892 ~ 1962	3.1운동	1990	애족장	영동
신석구	申錫九	1875 ~ 1950	3.1운동	1963	대통령장	청주
신석범	申錫範	1895 ~ 1949	3.1운동	2006	대통령표창	청주
신성휴	申聖休	1891 ~ 1955	3.1운동	1992	대통령표창	청주
신순호	申順浩	1922 ~ 2009	광복군	1990	애국장	청주
신업이	申業伊	1899 ~ 미상	3.1운동	2021	대통령표창	옥천
신영호	申鑠浩	1902 ~ 1947	3.1운동	1990	애족장	청주
신응규	申應奎	1884 ~ 1927	만주방면	2008	애국장	제천
신인식	申仁植	1924 ~ 1987	광복군	1990	애족장	청주
신정식	申鼎植	1869 ~ 1942	3.1운동	2006	건국포장	청주
신창희	申昌喜	1906 ~ 1990	중국방면	2018	건국포장	청주

이름	한자	생몰년	운동계열	포상년도	포상훈격	본적
신채호	申采浩	1880 ~ 1936	계몽운동	1962	대통령장	청주
신태동	申泰東	1902 ~ 1959	3.1운동	2005	대통령표창	충주
신태원	申泰元	미상 ~ 1907	의병	1991	애국장	기타
신팔균	申八均	1882 ~ 1924	만주방면	1963	독립장	진천
신학구	申學求	1877 ~ 1968	3.1운동	1990	애족장	청주
신현규	申鉉圭	1888 ~ 1928	국내항일	2002	독립장	괴산
신형균	申亨均	1920 ~ 1984	국내항일	2013	애족장	진천
신형식	申亨植	1895 ~ 1931	국내항일	1990	애국장	청주
신형호	申衡浩	1891 ~ 미상	미주방면	2011	애족장	청주
신홍균	申洪均	1870 ~ 미상	의병	2015	애족장	괴산
신홍식	申洪植	1872 ~ 1939	3.1운동	1962	대통령장	청주
신흥구	申興求	1881 ~ 1949	국내항일	1990	애족장	청주
심인택	沈仁澤	1859 ~ 1921	국내항일	2007	애족장	음성
안광득	安光得	1897 ~ 1933	3.1운동	1990	애족장	영동
안교봉	安敎奉	1876 ~ 미상	의병	2009	애국장	제천
안낙여	安落汝	1889 ~ 1924	3.1운동	2013	대통령표창	괴산
안대봉	安大鳳	1888 ~ 미상	3.1운동	2021	건국포장	영동
안만순	安萬淳	1899 ~ 1968	3.1운동	1992	대통령표창	보은
안병구	安秉九	1922 ~ 2007	학생운동	2005	건국포장	괴산
안병문	安秉文	1897 ~ 1922	3.1운동	1990	애족장	영동
안병하	安秉夏	1891 ~ 1960	3.1운동	1993	애족장	옥천
안성렬	安聖烈	1891 ~ 미상	국내항일	2017	대통령표창	영동
안성연	安成連	1888 ~ 1949	국내항일	2005	애족장	단양
안소석	安小錫	1877 ~ 미상	3.1운동	2021	애족장	영동
안숙	安潚	1863 ~ 1910	국내항일	1995	애국장	괴산
안재헌	安在憲	1900 ~ 1977	3.1운동	1990	애족장	음성
안준	安準	1900 ~ 1969	3.1운동	1990	애족장	영동
안창렬	安彰烈	1881 ~ 1919	3.1운동	1991	애국장	음성
안춘흥	安春興	1879 ~ 1955	의병	2017	애족장	충주
안후선	安珝善	1892 ~ 1936	만주방면	1990	애족장	음성
양병갑	梁炳鉀	1909 ~ 1970	학생운동	2023	대통령표창	보은
양봉식	梁鳳植	1882 ~ 1950	3.1운동	1991	애국장	영동
양신집	梁信集	1882 ~ 1948	3.1운동	1995	대통령표창	괴산
양재성	楊在成	1899 ~ 미상	3.1운동	2021	대통령표창	청주
양치선	梁致先	1890 ~ 미상	의병	2017	애국장	청주
양한기	梁漢紀	1880 ~ 1946	국내항일	1990	애족장	보은
양한위	梁漢緯	1883 ~ 1949	국내항일	1990	애국장	옥천
양희룡	梁熙龍	1900 ~ 미상	미주방면	2022	대통령표창	제천
엄원선	嚴元善	1883 ~ 미상	의병	2013	애족장	제천

이름	한자	생몰년	운동계열	포상년도	포상훈격	본적
엄재록	嚴在祿	1908 ~ 1973	학생운동	2023	대통령표창	충주
여구방	呂九芳	1886 ~ 1963	3.1운동	1990	애족장	영동
여구일	呂九一	1883 ~ 1974	3.1운동	1992	애족장	영동
여규병	呂圭炳	1879 ~ 1935	3.1운동	1992	애족장	영동
연병룡	延秉龍	1892 ~ 1919	3.1운동	1991	애국장	괴산
연병호	延秉昊	1894 ~ 1963	임시정부	1963	독립장	괴산
연병환	延秉煥	1878 ~ 1926	만주방면	2008	대통령표창	괴산
연부산	延富山	1898 ~ 미상	3.1운동	2020	대통령표창	괴산
오건해	吳健海	1894 ~ 1963	중국방면	2017	애족장	미상
오경화	吳敬和	1862 ~ 미상	의병	2015	애국장	충주
오교선	吳敎善	1883 ~ 1948	3.1운동	1990	애족장	청주
오덕문	吳德文	1886 ~ 미상	의병	2017	애족장	기타
오명선	吳明先	1881 ~ 미상	의병	2015	애국장	미상
오상근	吳相根	1924 ~ 2023	광복군	1990	애족장	진천
오상근	吳尙根	미상	계몽운동	1990	애족장	진천
오성문	吳聖文	1887 ~ 1942	3.1운동	2010	건국포장	진천
오성환	吳成煥	1896 ~ 미상	3.1운동	2022	대통령표창	진천
오언영	吳彦泳	1901 ~ 1971	3.1운동	2006	건국포장	충주
오용수	吳龍洙	1922 ~ 2008	학생운동	1990	애국장	영동
오형덕	吳亨德	미상	의병	2013	애족장	옥천
원도상	元道常	1848 ~ 1946	의병	1995	애족장	단양
원세덕	元世德	1893 ~ 미상	3.1운동	2017	대통령표창	단양
원용팔	元容八	1862 ~ 1906	의병	1990	애국장	제천
원응장	元應章	1882 ~ 미상	만주방면	2012	대통령표창	미상
원인석	元仁石	1888 ~ 1909	의병	1991	애국장	기타
원종응	元鍾應	1909 ~ 1991	국내항일	2003	건국포장	충주
원화상	元和常	1886 ~ 미상	의병	1995	애족장	음성
위송실	魏松實	1872 ~ 미상	의병	2013	애족장	영동
유근배	柳根培	1921 ~ 1964	국내항일	1996	애족장	음성
유긍렬	柳兢烈	1893 ~ 미상	국내항일	2016	대통령표창	옥천
유덕삼	柳德三	1878 ~ 1910	의병	1991	애국장	기타
유돈상	柳敦相	1894 ~ 1935	만주방면	1993	애족장	기타
유석현	劉錫鉉	1900 ~ 미상	중국방면	1977	독립장	충주
유자명	柳子明	1894 ~ 1985	임시정부	1991	애국장	충주
유재범	劉載範	1873 ~ 미상	의병	2015	애족장	기타
유재복	柳在福	1924 ~ 2017	광복군	1990	애족장	진천
유재찬	柳在贊	1881 ~ 1944	국내항일	2005	대통령표창	영동
유재혁	柳在赫	1911 ~ 2008	국내항일	2007	애족장	옥천
유제함	柳濟咸	1884 ~ 1964	의병	1990	애족장	기타

이름	한자	생몰년	운동계열	포상년도	포상훈격	본적
유진옥	柳鎭玉	1881 ~ 미상	의병	2013	대통령표창	제천
유진태	兪鎭泰	1872 ~ 1942	국내항일	1993	애국장	괴산
유해륜	柳海崙	1883 ~ 1956	3.1운동	1990	애족장	괴산
육동백	陸東百	1908 ~ 2007	학생운동	1990	애족장	옥천
육창주	陸昌柱	1886 ~ 1950	3.1운동	2005	애국장	옥천
윤규섭	尹槿燮	1920 ~ 2013	국내항일	1990	애족장	괴산
윤무영	尹務榮	1890 ~ 1962	3.1운동	1992	대통령표창	충주
윤병운	尹秉運	1927 ~ 1944	학생운동	2018	애국장	청주
윤병의	尹秉義	1822 ~ 1899	의병	2018	대통령표창	음성
윤병한	尹炳漢	1873 ~ 1932	3.1운동	1990	애족장	진천
윤복영	尹福榮	1884 ~ 미상	3.1운동	2011	대통령표창	충주
윤용구	尹容九	1879 ~ 미상	의병	1995	애족장	괴산
윤응선	尹膺善	1853 ~ 1925	의병	2015	건국포장	음성
윤인보	尹仁甫	1878 ~ 1951	3.1운동	1990	애족장	청주
윤정섭	尹鼎燮	1845 ~ 1913	의병	1996	애족장	단양
윤정학	尹正學	1867 ~ 1929	의병	2011	건국포장	음성
윤정훈	尹鼎勳	1881 ~ 1921	3.1운동	1990	애족장	보은
윤주영	尹周榮	1897 ~ 1938	3.1운동	1992	대통령표창	충주
윤태훈	尹太勳	1914 ~ 1999	광복군	1990	애족장	청주
윤희선	尹熹善	1872 ~ 1932	의병	1998	애족장	충주
윤희순	尹熙順	1860 ~ 1935	의병	1990	애족장	기타
이강렴	李康濂	1902 ~ 1927	3.1운동	1992	대통령표창	충주
이강호	李康滈	1895 ~ 1973	3.1운동	1992	대통령표창	충주
이건양	李建陽	1895 ~ 1963	3.1운동	1990	애족장	영동
이광	李光	1879 ~ 1966	임시정부	1963	독립장	청주
이광연	李光然	1872 ~ 1939	3.1운동	1990	애족장	영동
이교설	李敎卨	1880 ~ 미상	3.1운동	2008	대통령표창	음성
이국영	李國英	1921 ~ 1956	임시정부	1990	애족장	청주
이근백	李根伯	미상 ~ 1908	의병	2001	애국장	기타
이금봉	李金奉	1896 ~ 1950	3.1운동	1990	애족장	옥천
이기석	李基石	1873 ~ 1909	의병	2013	애국장	청주
이기영	李璣榮	1873 ~ 1946	3.1운동	1990	애족장	영동
이기진	李起振	1869 ~ 1908	의병	1990	애족장	충주
이기하	李起夏	1897 ~ 미상	3.1운동	2019	건국포장	제천
이낙연	李樂然	1899 ~ 1919	3.1운동	1991	애국장	영동
이덕현	李德賢	1882 ~ 미상	의병	2025	애족장	영동
이동인	李東仁	미상 ~ 1908	의병	2001	애국장	기타
이만봉	李萬逢	1890 ~ 미상	의병	1995	애족장	청주
이만석	李萬錫	1893 ~ 미상	3.1운동	2022	애족장	괴산

이름	한자	생몰년	운동계열	포상년도	포상훈격	본적
이만영	李萬英	1873 ~ 미상	의병	2025	애족장	영동
이만원	李萬源	1867 ~ 1944	의병	1990	애국장	제천
이맹삼	李孟三	1867 ~ 1919	3.1운동	1992	애국장	제천
이면호	李明相	미상 ~ 1909	의병	1963	독립장	단양
이명상	李冕鎬	1878 ~ 1920	3.1운동	1991	애국장	옥천
이명원	李明源	1869 ~ 1952	미주방면	2015	건국포장	충주
이명하	李命夏	1878 ~ 1921	만주방면	1963	독립장	제천
이문규	李文圭	1900 ~ 미상	3.1운동	2022	대통령표창	괴산
이범기	李範箕	1880 ~ 미상	의병	2013	애족장	단양
이범우	李範雨	1892 ~ 1971	3.1운동	1990	애족장	제천
이병선	李炳善	1882 ~ 1919	3.1운동	1991	애국장	청주
이병철	李秉徹	미상	국내항일	1990	애족장	충주
이봉연	李鳳然	1893 ~ 1941	3.1운동	1990	애족장	영동
이상곤	李相坤	1855 ~ 1919	의병	1995	대통령표창	보은
이상설	李相卨	1870 ~ 1917	계몽운동	1962	대통령장	진천
이상옥	李相玉	1890 ~ 1942	3.1운동	2021	대통령표창	청주
이상운	李相云	1927 ~ 1945	학생운동	1991	애국장	청주
이상직	李相稷	1878 ~ 1947	문화운동	1990	애족장	진천
이상찬	李相瓚	1884 ~ 1942	3.1운동	1990	애족장	영동
이상훈	李相勛	1901 ~ 1932	일본방면	2008	애족장	진천
이서구	李瑞九	1888 ~ 미상	3.1운동	2017	대통령표창	보은
이석린	李石麟	1924 ~ 1987	광복군	1990	애족장	단양
이성구	李晟九	1924 ~ 1978	광복군	1990	애족장	제천
이성순	李聖順	1869 ~ 미상	의병	2015	애족장	충주
이성용	李性用	1875 ~ 1920	3.1운동	1991	애국장	음성
이성태	李聖泰	1886 ~ 미상	3.1운동	2021	건국포장	청주
이세영	李世榮	1869 ~ 1951	의병	2005	애족장	제천
이수란	李水蘭	1862 ~ 1926	3.1운동	1995	애족장	청주
이수천	李壽千	1899 ~ 1965	3.1운동	2014	대통령표창	옥천
이승구	李承龜	1865 ~ 1931	의병	1995	건국포장	괴산
이승구	李承九	1880 ~ 1920	만주방면	1998	애국장	영동
이승기	李承畿	1887 ~ 미상	의병	2014	애국장	충주
이승칠	李承七	1850 ~ 1912	국내항일	1990	애족장	보은
이시우	李始雨	1894 ~ 1934	3.1운동	2008	대통령표창	청주
이영호	李榮鎬	1899 ~ 1974	3.1운동	1992	대통령표창	진천
이완모	李完模	1913 ~ 미상	학생운동	2023	대통령표창	보은
이요습	李要習	1901 ~ 미상	3.1운동	2021	대통령표창	진천
이용기	李龍基	1880 ~ 1942	3.1운동	1992	대통령표창	보은
이용복	李容馥	1876 ~ 미상	의병	2016	애족장	보은

이름	한자	생몰년	운동계열	포상년도	포상훈격	본적
이용실	李容實	1878 ~ 1964	3.1운동	1990	애족장	청주
이용업	李龍業	1859 ~ 미상	의병	1995	애국장	단양
이용운	李龍云	1883 ~ 미상	의병	1995	애족장	기타
이용준	李容俊	1907 ~ 1946	중국방면	1990	애국장	제천
이용태	李容兌	1890 ~ 1966	만주방면	1990	애국장	제천
이용학	李容學	1896 ~ 미상	3.1운동	2021	대통령표창	음성
이용호	李龍浩	1889 ~ 1920	3.1운동	1991	애국장	음성
이우민	李愚珉	1891 ~ 1943	중국방면	1999	애족장	청주
이원선	李元先	1880 ~ 미상	의병	2015	애국장	청주
이윤장	李允章	1923 ~ 2018	광복군	1990	애국장	청주
이윤철	李允哲	1925 ~ 2017	광복군	1990	애족장	청주
이응수	李應洙	1879 ~ 1950	국내항일	1990	애족장	영동
이인국	李仁國	1926 ~ 1977	국내항일	2021	대통령표창	괴산
이인찬	李仁粲	1909 ~ 1998	학생운동	2020	대통령표창	청주
이인하	李寅夏	1894 ~ 1980	3.1운동	1992	대통령표창	보은
이일신	李一信	1909 ~ 1988	학생운동	2002	건국포장	충주
이재성	李載誠	1887 ~ 1925	3.1운동	1995	애족장	괴산
이정규	李正奎	1864 ~ 1945	의병	1990	애국장	제천
이조승	李肇承	1873 ~ 1900	의병	1990	애족장	제천
이종국	李鍾國	1860 ~ 1939	의병	1993	건국포장	제천
이종만	李鍾萬	1892 ~ 1960	국내항일	1990	애족장	청주
이종면	李鍾冕	1867 ~ 1932	국내항일	1996	애족장	영동
이종원	李鍾元	1865 ~ 1931	의병	2021	애족장	영동
이종하	李鍾夏	1875 ~ 1948	3.1운동	2005	대통령표창	진천
이주면	李柱冕	1900 ~ 1947	국내항일	1993	대통령표창	제천
이주승	李冑承	1870 ~ 1945	의병	1990	애국장	제천
이준영	李準永	1889 ~ 1939	3.1운동	1992	대통령표창	보은
이중각	李重珏	1895 ~ 1923	국내항일	1990	애족장	청주
이중곤	李重坤	1891 ~ 1974	3.1운동	1990	애족장	음성
이중봉	李重鳳	미상	의병	1995	독립장	제천
이중화	李重華	1880 ~ 미상	임시정부	2013	애국장	보은
이진국	李鎭國	1898 ~ 1969	3.1운동	1990	애족장	영동
이진하	李晋夏	1881 ~ 1938	의병	1990	애족장	보은
이찬의	李瓚儀	1878 ~ 1919	3.1운동	1991	애국장	괴산
이창선	李昌善	1895 ~ 1961	3.1운동	1990	애족장	보은
이창손	李昌孫	1888 ~ 미상	의병	2015	대통령표창	충주
이채연	李彩然	1880 ~ 1954	3.1운동	1990	애족장	영동
이천의	李川義	1911 ~ 1996	광복군	1990	애족장	기타
이태갑	李泰甲	1883 ~ 1961	3.1운동	1990	애족장	괴산

이름	한자	생몰년	운동계열	포상년도	포상훈격	본적
이태수	李太壽	1881 ~ 1919	3.1운동	1991	애국장	음성
이태순	李泰順	1924 ~ 2020	광복군	1982	대통령표창	보은
이태영	李泰榮	1881 ~ 1958	의병	1990	애족장	제천
이태훈	李泰薰	1897 ~ 1970	국내항일	2004	대통령표창	제천
이택주	李宅周	1893 ~ 1947	3.1운동	1990	애족장	영동
이하익	李夏翼	1880 ~ 1954	국내항일	2022	건국포장	괴산
이호습	李鎬濕	1882 ~ 미상	의병	2015	애국장	청주
이호영	李瑚寧	1899 ~ 1968	3.1운동	2006	애족장	옥천
이화혁	李花赫	미상 ~ 1907	의병	1995	애족장	단양
이효경	李孝敬	1882 ~ 미상	의병	2014	애족장	제천
이희갑	李喜甲	1897 ~ 1953	3.1운동	1992	대통령표창	충주
임동묵	林東默	1910 ~ 1962	학생운동	2019	대통령표창	청주
임백규	林白圭	1889 ~ 미상	3.1운동	2023	대통령표창	음성
임병철	林炳喆	1924 ~ 2010	일본방면	1995	대통령표창	청주
임봉수	林鳳洙	1887 ~ 1970	3.1운동	1992	대통령표창	괴산
임봉춘	林奉春	1899 ~ 1971	3.1운동	1995	애족장	영동
임선재	任善宰	1902 ~ 1973	국내항일	1990	애족장	옥천
임수명	任壽命	1894 ~ 1924	의열투쟁	1990	애국장	진천
임용근	林龍根	1894 ~ 1963	3.1운동	2008	대통령표창	음성
임재덕	林在德	1876 ~ 1939	의병	2011	애족장	영동
임창무	林昌茂	1893 ~ 1944	3.1운동	1990	애족장	괴산
임철준	任哲準	1851 ~ 1907	의병	2001	애족장	제천
임초색	林草色	1889 ~ 미상	3.1운동	2021	대통령표창	괴산
임헌근	林憲根	1920 ~ 1951	인도네시아	2011	건국포장	청주
장경춘	張景春	1880 ~ 1923	의병	1990	애국장	음성
장복철	張福喆	1890 ~ 1931	3.1운동	1990	애족장	영동
장성원	張聖源	1897 ~ 1956	3.1운동	1990	애족장	괴산
장성이	張星伊	1896 ~ 1938	3.1운동	2008	대통령표창	청주
장양헌	張良憲	1898 ~ 1984	3.1운동	1997	대통령표창	충주
장용근	張用根	1900 ~ 미상	3.1운동	2019	건국포장	제천
장익환	張益煥	1866 ~ 1937	의병	1990	애족장	단양
장인득	張寅得	1888 ~ 1964	3.1운동	1995	건국포장	영동
장인식	張仁植	1877 ~ 미상	의병	1995	애족장	단양
장일귀	張日貴	1881 ~ 미상	3.1운동	2013	대통령표창	음성
장일환	張一煥	1882 ~ 1919	3.1운동	1991	애국장	청주
장출봉	張出鳳	1901 ~ 미상	3.1운동	2005	대통령표창	영동
장충식	張忠植	1836 ~ 1901	의병	1992	애족장	단양
장팔용	蔣八龍	1883 ~ 미상	의병	2021	대통령표창	단양
장현근	張鉉瑾	1909 ~ 1969	중국방면	1990	애족장	음성

이름	한자	생몰년	운동계열	포상년도	포상훈격	본적
전기서	全基西	1885 ~ 미상	의병	2016	애국장	영동
전두환	全斗煥	1885 ~ 1937	국내항일	2022	대통령표창	옥천
전만표	全萬杓	1876 ~ 1959	3.1운동	1990	애족장	영동
전재득	全在得	1898 ~ 1968	3.1운동	1995	대통령표창	영동
전좌한	全佐漢	1899 ~ 1986	중국방면	1963	독립장	옥천
전필현	全弼鉉	1890 ~ 미상	3.1운동	2021	대통령표창	제천
전해운	全海運	1890 ~ 1951	임시정부	2010	애족장	음성
정구석	鄭求奭	1900 ~ 1965	국내항일	2019	건국포장	보은
정낙륜	鄭樂倫	1884 ~ 1966	임시정부	1990	애족장	충주
정대영	鄭大永	1901 ~ 1953	3.1운동	2006	대통령표창	음성
정돈영	鄭暾永	1874 ~ 1919	3.1운동	1991	애국장	영동
정명옥	鄭明玉	1898 ~ 미상	국내항일	2015	애족장	옥천
정무섭	鄭武燮	1886 ~ 1960	3.1운동	1990	애족장	청주
정민영	鄭玟永	1901 ~ 1970	3.1운동	1995	대통령표창	음성
정방모	鄭邦模	1900 ~ 1934	국내항일	2017	대통령표창	보은
정순만	鄭淳萬	1873 ~ 1911	만주방면	1986	독립장	청주
정술원	鄭述源	1860 ~ 1931	의병	1995	애족장	제천
정시항	鄭時恒	1866 ~ 미상	의병	1995	애국장	충주
정양필	鄭良弼	1892 ~ 1975	미주방면	1995	애족장	청주
정여선	鄭與先	1855 ~ 미상	의병	2021	애족장	충주
정연철	鄭淵鐵	미상	의병	1995	애족장	제천
정옥모	鄭玉模	1924 ~ 1989	광복군	1990	애족장	보은
정운경	鄭雲慶	1861 ~ 1939	의병	1977	독립장	제천
정운기	鄭雲淇	1875 ~ 1943	국내항일	1990	애국장	괴산
정원택	鄭元澤	1924 ~ 1992	광복군	1990	애족장	영동
정원택	鄭元澤	1890 ~ 1971	임시정부	1990	애국장	음성
정유흥	鄭有興	1901 ~ 미상	3.1운동	2022	대통령표창	청주
정이헌	鄭履憲	1872 ~ 1907	의병	1991	애국장	음성
정익	鄭瀷	1860 ~ 1914	의병	1995	애족장	제천
정인근	鄭仁根	1913 ~ 1979	학생운동	2018	대통령표창	영동
정종석	鄭鍾奭	1905 ~ 1973	학생운동	1990	애족장	옥천
정주해	鄭周海	1892 ~ 1942	만주방면	1990	애국장	괴산
정중택	鄭仲澤	1880 ~ 미상	의병	2013	건국포장	제천
정진섭	鄭鎭燮	1910 ~ 미상	학생운동	2023	대통령표창	청주
정춘서	鄭春瑞	1885 ~ 1911	의병	1977	독립장	청주
정태영	鄭泰榮	1888 ~ 1959	국내항일	1990	애족장	기타
정태희	鄭泰熙	1898 ~ 1952	임시정부	1963	독립장	충주
정해문	鄭海文	1882 ~ 1947	3.1운동	1993	대통령표창	괴산
정해용	鄭海容	1880 ~ 1942	3.1운동	1990	애족장	영동

이름	한자	생몰년	운동계열	포상년도	포상훈격	본적
정해원	鄭海元	1900 ~ 1983	3.1운동	2022	대통령표창	청주
정해창	鄭海昌	1885 ~ 1909	의병	1995	애족장	제천
정화순	鄭化順	1871 ~ 미상	3.1운동	2010	대통령표창	옥천
정화중	鄭化中	1888 ~ 1931	3.1운동	1993	애족장	영동
정환범	鄭桓範	1903 ~ 1977	임시정부	1990	애국장	청주
정희준	鄭熙準	1895 ~ 미상	3.1운동	2022	애족장	음성
조규학	曹圭鶴	1886 ~ 미상	3.1운동	2017	대통령표창	괴산
조덕장	趙德章	1876 ~ 1934	의병	1996	애국장	영동
조동교	趙東敎	1876 ~ 1908	의병	2002	애족장	제천
조동식	趙東植	1873 ~ 1949	3.1운동	1990	애족장	청주
조동호	趙東祜	1892 ~ 1954	국내항일	2005	독립장	옥천
조명희	趙明熙	1894 ~ 1938	노령방면	2019	애국장	진천
조병일	曺秉一	1887 ~ 1920	만주방면	1996	애족장	기타
조봉선	趙奉先	1882 ~ 미상	의병	1995	애족장	음성
조성여	趙聖汝	1856 ~ 1907	의병	2003	애국장	청주
조세기	趙世基	1888 ~ 미상	3.1운동	2021	대통령표창	괴산
조용근	趙用根	미상 ~ 1908	의병	1991	애국장	청주
조응삼	趙應三	1875 ~ 1956	의병	1991	애국장	음성
조장하	趙章夏	1847 ~ 1910	계몽운동	1990	애국장	청주
조종구	趙鍾求	1910 ~ 1958	만주방면	1990	애족장	보은
주광식	朱光植	1874 ~ 1957	의병	2002	애국장	충주
주용규	朱庸奎	1845 ~ 1896	의병	1991	애국장	제천
주현구	朱鉉九	1869 ~ 1897	의병	1995	애족장	제천
지도원	池道元	1879 ~ 1946	3.1운동	1992	대통령표창	괴산
지팔문	池八文	1884 ~ 미상	의열투쟁	2015	애족장	옥천
차병률	車炳律	1884 ~ 미상	의병	2015	애국장	제천
채수복	蔡洙福	1910 ~ 1945	국내항일	1990	애족장	진천
채찬	蔡燦	미상 ~ 1924	만주방면	1962	독립장	충주
천성십	千聖十	1863 ~ 1907	의병	2003	애국장	청주
최경선	崔敬先	1879 ~ 미상	의병	1995	애국장	괴산
최남근	崔南根	1882 ~ 미상	의병	2015	애족장	제천
최대옥	崔戴玉	1866 ~ 미상	의병	1995	애족장	기타
최덕용	崔德用	1899 ~ 1961	3.1운동	1992	애족장	영동
최만득	崔萬得	1900 ~ 미상	3.1운동	2021	대통령표창	음성
최명기	崔明起	1882 ~ 미상	의병	2018	애족장	충주
최명수	崔明洙	1881 ~ 1951	만주방면	1991	애국장	청주
최명희	崔明熺	1892 ~ 미상	3.1운동	2021	건국포장	충주
최봉기	崔琫基	1894 ~ 1975	국내항일	2002	대통령표창	충주
최봉원	崔鳳源	1879 ~ 1923	3.1운동	2009	대통령표창	청주

이름	한자	생몰년	운동계열	포상년도	포상훈격	본적
최성천	崔聖天	1884 ~ 1910	의병	1995	독립장	충주
최세균	崔歲均	1925 ~ 1943	일본방면	1996	애족장	청주
최영백	崔榮百	1921 ~ 2005	학생운동	1990	애족장	청주
최용문	崔容門	1898 ~ 1981	3.1운동	1992	대통령표창	보은
최욱영	崔旭永	1854 ~ 1919	의병	1977	독립장	제천
최종률	崔鍾律	1890 ~ 미상	3.1운동	2021	대통령표창	제천
최진만	崔晋萬	1899 ~ 미상	만주방면	2022	애국장	영동
최치로	崔致魯	1866 ~ 미상	의병	1995	애족장	청주
추성렬	秋成烈	1887 ~ 1970	3.1운동	1993	대통령표창	충주
편군선	片君善	1860 ~ 1910	의병	2018	애국장	괴산
하성근	河聖根	1900 ~ 1973	3.1운동	2013	대통령표창	괴산
하한서	河漢瑞	미상 ~ 1908	의병	1991	애국장	제천
한경천	韓敬川	1879 ~ 미상	의병	2014	애국장	청주
한광교	韓光敎	1900 ~ 1959	3.1운동	1995	대통령표창	영동
한명만	韓明萬	1887 ~ 1911	의병	2009	애국장	제천
한병호	韓秉浩	1881 ~ 미상	국내항일	2012	애족장	청주
한봉수	韓鳳洙	1883 ~ 1972	의병	1963	독립장	청주
함관서	咸寬西	1875 ~ 미상	의병	2017	애족장	청주
함재원	咸在源	1885 ~ 1947	3.1운동	1991	애족장	괴산
허간	許諫	1859 ~ 1942	3.1운동	1990	애족장	옥천
허량	許樑	1895 ~ 1935	3.1운동	1990	애족장	영동
허복순	許福淳	1888 ~ 1911	의병	2010	애국장	단양
허상구	許相球	1898 ~ 1958	3.1운동	1990	애족장	옥천
허상기	許相基	1871 ~ 1946	3.1운동	1990	애국장	옥천
허상회	許相淮	1881 ~ 1968	3.1운동	1990	애족장	옥천
허준여	許俊汝	1887 ~ 미상	의병	2014	대통령표창	단양
허찬	許贊	1886 ~ 1945	3.1운동	1992	애족장	옥천
현만협	玄萬協	1862 ~ 미상	국내항일	2019	대통령표창	충주
현치삼	玄致三	1888 ~ 미상	의병	2021	애족장	진천
홍경식	洪景植	1889 ~ 1961	만주방면	1990	애국장	진천
홍금자	洪金子	1912 ~ 미상	학생운동	2019	대통령표창	충주
홍범식	洪範植	1871 ~ 1910	계몽운동	1962	독립장	괴산
홍봉운	洪鳳雲	1892 ~ 1919	3.1운동	2014	애국장	괴산
홍승로	洪承魯	1895 ~ 1967	일본방면	1990	애족장	기타
홍승욱	洪承旭	1880 ~ 미상	국내항일	2012	애국장	괴산
홍용식	洪用植	1894 ~ 1949	3.1운동	1990	애족장	괴산
홍윤식	洪倫植	1890 ~ 미상	3.1운동	2021	건국포장	괴산
홍일창	洪一昌	1890 ~ 1929	국내항일	1990	애족장	청주
홍진	洪震	1877 ~ 1946	임시정부	1962	독립장	영동

이름	한자	생몰년	운동계열	포상년도	포상훈격	본적
홍태식	洪台植	1900 ~ 미상	만주방면	2019	대통령표창	괴산
황경문	黃敬文	1872 ~ 미상	의병	2013	대통령표창	제천
황덕화	黃德化	1875 ~ 미상	의병	1995	애국장	영동
황만모	黃萬模	1893 ~ 1977	3.1운동	2008	대통령표창	괴산
황상현	黃上玄	1894 ~ 1954	국내항일	1997	애국장	괴산
황영래	黃永來	1897 ~ 1922	만주방면	1991	애국장	청주
황학수	黃學秀	1877 ~ 1953	임시정부	1962	독립장	제천

02. 충북의 방언

사람과 언어 그리고 충북 방언의 형성

박경래(세명대학교 명예교수)

글을 시작하면서

이 글은 『충북학누리』 편집진의 의도를 반영하여 "충북 사람들의 삶과 문화가 반영된 충북 방언"이라는 큰 주제 아래 1. 사람과 언어 그리고 충북 방언의 형성, 2. 충북 방언과 하위 방언권, 3. 정겨운 충북 방언의 특징, 4. 사라져가는 충북 방언, 지켜야 할 충북 방언 등 네 가지 소주제 가운데 첫 번째 연재물이다.

말이란 무엇인가?

한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말은 그 사람의 경험과 그 경험에 기반한 사고체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는 그 사람의 삶과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어떠냐를 알려주는 바로미터가 된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했다. 이 말은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방식이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고,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 존재의 본질을 표현하는 수단이 언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언어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인간의 존재와 현실 세계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충북 방언의 이해

언어가 의사소통의 도구인 동시에 인간과 현실 세계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충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왔고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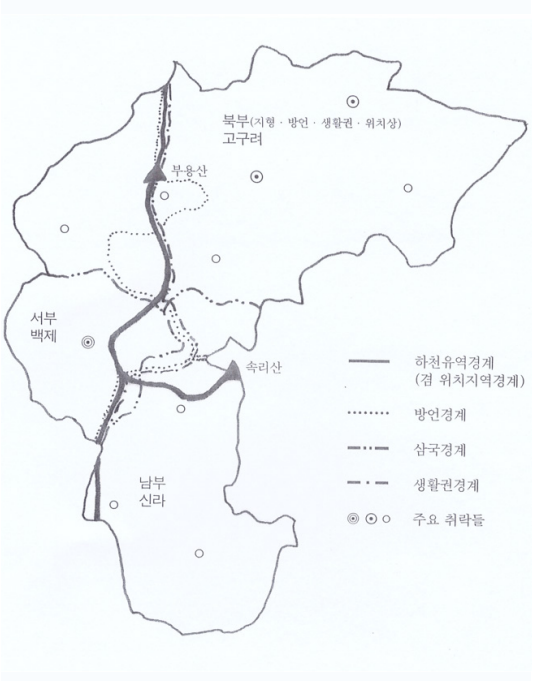
흔히 충청도 말의 특징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리여~어'와 같이 느리고 길게 빼는 것과 '그려유'와 같이 존칭의 종결어미 '-유'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대답할 때의 감탄사 '야!' 정도를 들기도 한다. 이러한 특징은 인상적인 것이지 의사소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충청도 사람들의 말이 다 느린 것도 아니고 다 '-유'를 쓰는 것도 아니다. 또 말이 느리다고 한다면 느린 근거와 기준은 무엇인가? 내 말은 전혀 느린 것 같지 않은데 누가, 왜 그렇게 느리다고 하는가? 이러한 특징 외에 다른 특징은 없는가? 충북 방언의 특징은 무엇에 기인하는가? 등 수많은 질문이 따른다.

따라서 충북 방언을 이해하려면 충북 사람들이 살아온 충북의 지리적 특성과 문화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 충북 사람들의 말에는 그들의 삶과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역으로 말하면 충북 사람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누구와 어떻게 교류하며 살아왔는가를 알아야 '그래서 충북 사람들은 이런 말을 이렇게 쓰는구나', '그래서 충북 말이 이렇구나' 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충북의 지리적인 특징과 충북 방언

충북은 영·호남과 서울의 중간에 위치하는 교통의 요지라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국가 시기에는 마한 땅에 속했고, 삼국의 정립 이후에는 백제에 속하게 되었다. 삼국의 정립 이후 고구려는 영토를 확장하여 한강 수계까지 남하하였고, 신라는 한강 수계까지 북상하여 영토를 확장함으로써 충북은 삼국의 분거지이자 국경 지역이 되었다. 충북이 삼국의 각축장이 된 것은 충북의 지형적인 특성 때문인데 모든 길이 남-북이나 남동-북서 방향으로 나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후 지금까지 충북의 남동부를 가로막는 소백산맥과 북서쪽에 펼쳐진 차령산맥의 옛길을 통하여 기호지방이나 영남지방과 교류해 왔다.

〈그림 1〉
충북의 지형(충북학 P.31에서)



〈그림 2〉
충북의 요소별 지역 경계(충북학 제2집 P.34에서)

충북과 경북이 연결된 교통로는 단양과 경북 풍기 사이의 죽령(竹嶺), 연풍·충주와 문경 사이의 조령삼로(鳥嶺三路), 즉 계립령(鷄立嶺), 조령(鳥嶺), 이화령(伊火嶺) 그리고 괴산·화양동과 경북 가은 사이의 주항령(周項嶺), 보은과 경북 상주 사이의 화령(化嶺), 영동과 경북 김천 사이의 추풍령(秋風嶺)이 있다. 소백산맥을 사이에 두고 경북과 통하는 단양, 제천, 괴산, 보은, 영동 등 충북의 동부와 남동부 지역은 경북 방언의 영향을 받았다. 이와 달리 차령산맥에는 제천과 강원 원주를 잇는 치악재가 있고, 충주와 강원 원주 사이에 소태재 등 작은 고개가 있으나 충주와 음성에서 경기도 장호원이나 안성으로 통하는 길과 진천에서 용인과 안성, 성환으로 이어지는 길은 평탄하다. 청주(옛 청원)와 옥천 지역은 세종(조치원), 대전, 금산으로 이어지고 보은과 영동은 각각 경상북도 상주와 김천 및 충남 금산과 이어져 그곳 방언의 영향을 받았다. 여기에 충북의 남부와 북부 지역을 관류하는 금강과 남한강은 일찍부터 문화와 문물이 전파되고 유통되는 천연적인 교통로가 되었다. 결국 내륙에 위치한 충북은 인접 지역인 경기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등과 교류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접 방언들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 방언은 다른 지역에서 쓰이는 방언에 비해 상대적으로 뚜렷한 특징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여겨져 왔다. 그렇지만 개별 방언의 수많은 하위 방언들은 인접한 다른 방언들과 접촉하면서 복잡한 양상을 띠게 마련이다. 충북의 지리적인 위치와 지형적인 특성상 충북 방언은 인접 방언에 둘러싸여 그 방언들과 끊임없이 접촉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어로부터의 지속적인 언어적 차용이 있었기에 그만큼 방언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방언의 특징 또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의 개별 방언은 사투리와 달리 다른 개별 방언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가지는 하나의 언어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지역 방언에 사투리가 적다는 것은 다른 방언에 비해 공통점이 많고 차이점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특징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충북 방언이 뚜렷한 특징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 이유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충북 방언을 다루었기 때문이다. 타 방언에 비해 정밀한 관찰이나 연구가 적어 개별 방언으로서의 충북 방언이 가진 공통 특징과 그 하위 방언들이 보여주는 차이점들을 추출해 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의 내륙에 위치하여 타 방언에 둘러싸인 충북 방언 전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망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충북 방언의 성립

충북은 지역적으로 사방이 다른 방언을 쓰는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것이 충북 방언을 특징지을 수 있는 요건이 되지만 학계에서는 충북 방언을 중부방언권에 속하는 하나의 하위 방언 정도로 여겨온 것도 사실이다. 이는 방언 연구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 학자 소창진평(小倉進平)과 하야육랑(河野六郎)에 의해 시작되었고 그것도 개별 방언으로서의 충북 방언에 대한 성격과 특징을 구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어사적인 관점에서 전국 단위의 개략적인 방언 구획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충북 방언을 광역 조사 연구에 포함시켜 연구한 데다가 방언 자료도 일관성 있는 기준에 의해 수집된 것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개별 방언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보다 국어사적인 주제에 집중하여 하나의 방언 현상에 대한 형식 중심의 개체사적인 태도에 입각하여 개별 방언을 기술하였다. 또한 지리적인 분포를 고려하여 하나의 항목을 중심으로 일 대 일 대응을 통하여 방언 경계를 긋고 방언구획을 시도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한반도를 동북방언권(함경남·북도), 서북방언권(평안남·북도), 중부방언권(강원도,

경기도, 황해도, 충청남·북도), 서남방언권(전라남·북도), 동남방언권(경상남·북도), 제주도방언권(제주도) 등 여섯 개의 대방언권으로 나눈 이래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해방 이후 기술언어학적인 연구방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개별 방언의 언어 체계에 대한 공시적인 기술에 관심이 증가하였지만 충북 방언에 대하여는 넓게는 중부방언권에 포함시키고 좁게는 충청 방언권에 포함시켜 부수적으로 언급되다가 충북 방언을 독자적으로 인정하고 이 지역을 포괄하는 방언 특징에 대한 기술이 시도된 것은 1970년대 말에 와서의 일이다. 이후 군 단위의 개별 방언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와 검토를 바탕으로 면 단위 방언 조사를 실시하여 충북 방언에 대한 하위 방언권을 구획하기도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충북 방언의 음운체계와 문법적인 특징 등에 대한 기술과 하위 개별 방언에 대한 기술이 이루어졌다. 이후 1980년대 중반부터는 사회언어학적인 관점에서의 기술이 시도되었지만 충북 방언 전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루지는 못했다. 이후 2000년대 들어서 충북 방언의 특징을 보여주는 하위 개별 방언(6개 군)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와 기술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 방언 지도를 그리기 위한 조사와 연구가 국립국어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충북 방언의 개별 하위 방언들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연구는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이는 교육이나 매스컴 등 매체의 영향을 받아 표준어의 사용이 증가했고, 방언 연구의 특성상 현지 조사를 해야 하는 어려움 등으로 기피했던 데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는 충북 방언이 급속히 사라져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하위 개별방언에 대한 정밀하고 체계적인 조사가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충북 방언의 특징을 인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 첫째는 대화 맥락에 따라 생략과 함축이 많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충남 방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명제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려고 할 때 직접적이고 바로 말하지 않고 생략하거나 함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다음의 대화문을 보자.

(1) A: 아이, 운:제 갈 기여? B: 곧 갈 기여.
(2) A: 아이, 운:제 갈 기여~어? B: 곧 갈 기여~어.

위의 두 예문은 두 가지를 고려해서 이해해야 한다. 하나는 대화문에 나타난 표현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문장에 얹혀 동시에 나타나는 억양이나 음장 등 운율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이해하는 것이다. 예문 (1)은 문장 끝을 짧게 끝맺는 것으로 A가 단순히 '언제 갈 것인지' 묻는 것이고 이에 대해 B가 '곧 갈 것'이라고 답한 것이다. 이런 경우는 다른 지역 방언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곧'이 언제인지는 B만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지만 A가 더 이상 묻지 않고 수용한다면 A도 B가 말한 '곧'이 언제쯤인지 이해한다는 말이 된다. 대화 맥락에 따라 이 '곧'은 '몇 분'에서부터 '몇 시간'이 될 수도 있고, '하루 이틀'에서부터 '며칠' 또는 '몇 달'이 될 수도 있다. 이와 달리 예문 (2)는 언제 갈 것인지 묻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늦었는데' 또는 '많이 기다렸는데' 빨리 가자고 재촉하는 뜻으로도 쓰이고, 가기는 갈 것인지 확인하는 뜻으로도 쓰인다. 따라서 B의 대답은 '머지 않아 바로 갈 것'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머지 않아 가기는 갈 것'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이미 잘 알려진 다음과 같은 예도 있다. 다음은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면서 상대방의 기호를 묻고 답하는 대화문이다.

(3) A: 개 혀? B: 혀.

A가 '개고기 보신탕'을 먹는지 물어보자 B가 먹는다고 답하는 것이다. 거두절미하고 사람마다 호불호가 분명한 '보신탕'을 먹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질문과 답변인데 '먹다' 대신 '하다'를 써서 완곡하게 표현하면서 모두 생략하고 핵심만 말하는 것이다. 다른 방언권의 화자가 볼 때는 매우 애매하고 불명확한 소통 방법으로 여길 수 있는 예다.

둘째는 하위 방언권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충북 방언이라고 해서 충북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방법으로 말하지는 않는다. 가령 충북 북부인 단양이나 제천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화를 들을 수 있다.

A: 아주머이네 집은 어디래요?　　B: 여가 우리집이래요.

위 대화문은 A가 2인칭 청자인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네 집은 어디예요?'의 뜻으로 묻는 말인데 다른 방언권 화자들이 들으면 마치 제3자인 "'아주머니'의 집은 어디라고 해요?"와 같이 간접화법으로 묻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 마찬가지로 B는 평서문으로 '여기가 우리집이예요.'라고 대답한 것인데 타 지역 방언권 화자가 들으면 마치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여기가 우리집이라고 해요'와 같이 간접 인용문처럼 이해되기 때문에 본인이 자기 집도 몰라서 남들이 알려줘야 안단 말이야 하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충북의 북부 지역인 단양이나 제천에서는 강원도나 경상도 방언의 영향으로 충북의 중부나 남부 지역 방언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한편 충북의 남부 지역인 영동, 특히 상촌면이나 황간면의 경우는 '거두어 들인다'를 '거다 들인다'와 같이 모음조화를 어긴 형태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처럼 단어는 물론이고 구나 문장의 단위에서도 하위 방언권별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는 충북의 지리적인 특성이 반영되어 다양한 방언형이 섞여 사용된다는 점이다. 특히 어휘의 경우는 접촉하는 인접 방언권에서 차용하여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일한 표준어에 대응하는 방언형이 지리적인 분포를 달리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한두 어휘를 살펴보자.

먼저 표준어의 '갈퀴'에 대하여 북부 지역인 단양과 제천에서는 강원도 방언의 영향을 받은 '각지/깍지'계의 방언형이 쓰이고 남부 지역인 옥천과 영동에서는 경상도 방언의 영향을 받은 '갈구리/깔구리'계의 방언형이 쓰인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경기도, 충청남도와 같은 '갈키/깔키'계의 방언형이 쓰인다. 표준어의 '곤지곤지'에 대하여 남부 지역의 영동, 옥천, 보은 지역에서는 경상도 방언의 영향을 받은 '진진/진진진/진진진진'형이 쓰이는데 나머지 지역에서는 대부분 '곤지곤지'형이 쓰이지만 '괴산'이나 '충주'에서는 충남 방언형인 '찌껑찌껑/째깡째깡'형이 쓰이기도 한다. 그리고 '(달걀)꾸러미'에 대하여는 '꾸러미/꾸루미/꾸레미/꾸리미/끄리미'와 같은 '꾸러미'계와 '줄'계가 쓰이는데 '꾸러미'계는 보은, 옥천, 청주, 진천, 충주, 제천, 단양 등 충북의 중북부 지역에서 쓰이고 '줄'계는 영동, 옥천, 보은, 청주 등

충북의 중남부 지역에서 주로 쓰인다. 보은, 옥천, 청주와 같은 충북의 중부 지역은 '꾸러미'계와 '줄'계가 공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꾸러미'계와 '줄'계가 공존하는 지역은 경기도를 비롯하여 강원도, 충북 중북부, 경상도 등 주로 한반도 중부와 동부 지역에 분포하여 쓰이는 '꾸러미'계와 충남과 전라도 지역에 주로 분포하여 쓰이는 '줄'계가 부딪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예들과는 달리 표준어 '꽹과리'의 방언형 분포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인다. 충북은 크게 보아 강원도, 경기도 등과 함께 '꽹과리'계 지역인데 '괴산, 진천, 보은, 옥천' 지역에서는 '꽹과리'계의 '깽가리'형과 충남과 전라도 지역에서 쓰이는 '꽹매기/깽매기'형도 함께 쓰인다. 이에 비해 경상도 지역에서는 '매구/메구'형이 쓰인다. 이는 두 가지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충북에서 쓰이는 '꽹매기/깽매기'형이 충남이나 전라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꽹과리'계의 '꽹/깽-'에 '메구'형이 합성된 어형으로 볼 수도 있다. 방언형의 형성과정이야 어떻든 충북에 인접한 방언형이 공존한다는 것은 충북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인접 방언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충북 방언은 충북의 역사적, 지리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충북이 내륙에 위치한다는 지리적 특성상 충북 방언은 인접 방언과의 접촉을 통하여 독특한 방언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영국사 원각국사비와 법주사 자정국존비의 서풍

이동원(서예가)

이 글에서는 영동 영국사의 원각국사비와 보은 법주사의 자정국존비의 서체를 분석하여 고려 중기와 후기 충북 서풍의 일면을 살필 것이다. 두 비문이 이 시기 충북 지역에서 대표할 만한 금석문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고려 중기의 대표적 명필로는 경기 안성 칠장사 혜소국사비(1060)의 비문을 구양순 풍으로 쓴 민상제(閔賞濟,?~?), 강원 원주 법천사 지광국사탑비(1085)의 비문을 쓴 안민후(安民厚,?~?), 경남 합천 반야사 원경왕사비(1125)의 비문을 우세남 풍으로 쓴 이원부(李元符, ?~?), 춘천 청평사 진락공중수청평산문수원기(1130)를 왕희지 풍으로 쓴 탄연(坦然,1069~1158)과 기준(機俊,?~?), 오언후(吳彦侯,?~?), 유공권(柳公權,1132~1196) 등을 꼽는다. 이 가운데 탄연은 왕희지체로 서단을 일변시킨 장본인이다. 그는 당시에 풍미하던 구양순 일색의 서단 풍토에 순정한 왕희지체를 수용하여 그 체격에 안노공의 표정을 담거나 혹은 그것을 우리 토양과 시대 미감에 맞게 적절히 변용시킨 작가라 할 수 있다. 탄연의 출현으로 이 시기 고려 서단은 일대 전환기를 맞는다.[1)]

영동 영국사 원각국사비

영동 영국사 원각국사비(永同 寧國寺 圓覺國師碑)는 1180년에 세워졌다. 이 시기는 고려 중기로 정중부(鄭仲夫) 등이 일으킨 무신란 이후 무신정권 초기에 해당한다. 무신정권기 사회는 왕권이 약화된 채로 무신들의 권력투쟁이 계속되어 혼란스러웠다. 갈수록 무신과 지방관들의 횡포와 수탈이 심해

1) 채용복, 「고려중기 서예의 연구」, 『한국서예2천년』, 예술의전당, 2000. 74쪽.

피지배층의 민심은 매우 좋지 않았으며 참다못한 백성들은 급기야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혼란한 상황에서도 대외적으로는 몽고에 저항하며 자주성이 강화되고, 한편으로 문화예술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기도 했다. 서예 분야에서도 수백 편의 묘지명과 탑비의 금석문이 이를 대변해 주고 있다.

이 시기 서단의 동향은 전대의 획일화된 구양순체 중심에서 다소 폭넓게 수용되었다. 예컨대 우세남체와 안진경체, 그리고 신라 이래 재등장한 왕희지체가 그것이다. 이미 고려는 송(宋)을 명목상 종주국으로 섬기며 그들의 선진문화를 받아들였고, 송판본(宋板本)의 도입과 송자(宋磁)의 수입은 고려의 목판인쇄(木板印刷)와 청자(青磁) 기술의 발달에 이바지한 바 크다. 그러나 고려 귀족층이나 무신란 이후의 신흥사대부들은 문화적 성향에 관한 한 보수성이 강하여 당의 것을 오히려 숭상하거나 답습하는 정도였다. 따라서 고려의 서가들은 송대의 신사조의 경향인 행서체보다는 해서를 비문에 여전히 쓰고 있었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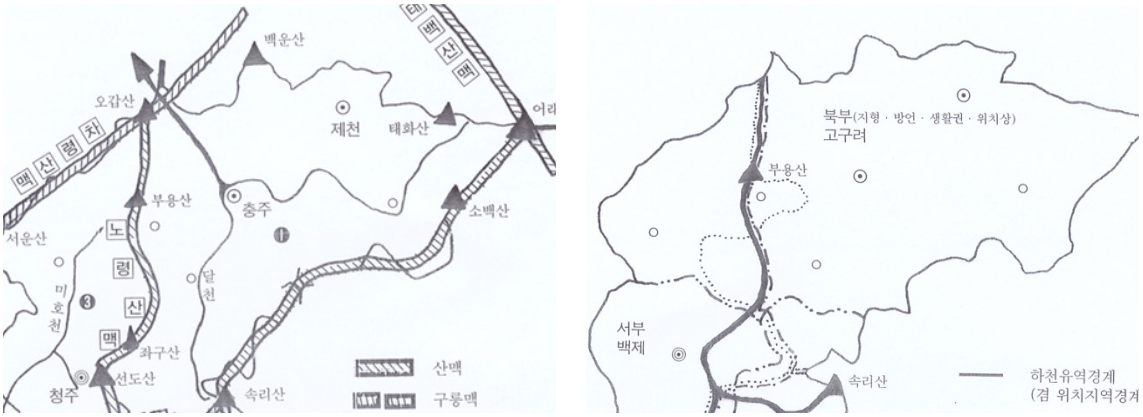
영동 영국사 원각국사비

2) 위의 책, 78쪽.

영동 영국사 원각국사비는 영동군 양산면 영국동길 225-35번지 영국사 입구에 비각을 세워 보존하고 있으며 1971년 보물 제534호로 지정되었다. 고려 중기의 선사로 고려 명종 때의 왕사(王師)이며 천태학(天台學)의 대가였던 원각국사 덕소(圓覺國師 德素, 1107~1174)의 행장을 새긴 비이다. 비문에 의하면 원각국사의 속성은 전씨(田氏)이며 이름은 자미(子美), 자는 혜약(慧約)이다. 9세 때 국청사(國淸寺)에서 대각국사(大覺國師) 의천(義天)의 제자인 교웅(敎雄)에게 출가하였는데 교웅은 그를 장차 천태종을 융성하게 할 인물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원각국사는 어느 날 대장당(大藏堂) 에 들어가 장경함을 열고 책을 읽다가 문득 깨쳤다고 하며 그 후 인종 20년(1142)에 울주에 있는 영취산에 머물며 학승들을 가르쳤다. 의종 7년(1153)에 선사가 되고 이어 대선사가 되었으며 1170년에는 왕사로 임명되었다. 문하의 수많은 천태의 고승들을 배출하였고 명종4년(1174) 55세에 서쪽을 향해 앉은 채 입적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대동금석고』에 의하면 국사가 입적하자 송악산 서쪽 기슭에서 다비를 거행하였으며, 명종은 부음을 듣고 그에게 원각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국사에 추증하였으며 유해를 영국사에 안치하도록 명하고 한문준(韓文俊,?~?)에게 비문을 짓도록 하였다. 이로부터 비의 건립은 6년이 지난 명종 10년(1180)에세웠다.

비의 전체 높이는 371cm, 비신 165cm, 너비 78cm, 측면 13cm로 귀부와 이수가 있는 전형적인 고려시대 선사탑비의 양식이다. 현재 귀부 등의 비좌에 아랫부분이 결실되어 훼손이 심한 비신을 올려 세워져 있고 그 옆으로 이수는 내려져 있다. 비신은 귀부와 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고 얇은 형태로 전체적인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둔중한 느낌이다.[3] 귀부의 용두화된 거북머리는 퇴화되었고, 거북 등의 6각형 무늬와 비좌의 덩굴무늬는 생략되었다. 비신은 석질이 점판암으로 심하게 훼손되었으며 비문 주위로 당초문을 그렸다. 이수에는 구름과 용이 형식적으로 새겨져 있고 앞면 중앙에는 '圓覺國師碑銘'(원각국사비명)이라는 제액이 쓰여 있다.[4]

3) 박문현, 「충북지역의 고려석비 양식변천과 비액 서체연구」, 『충북학』 16, 2014, 43쪽.
4)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



〈영동 영국사 원각국사비〉 이수(좌)와 제액 탁본

비문의 서체는 이수 제액의 전서 소전과 비양·비음의 해서 두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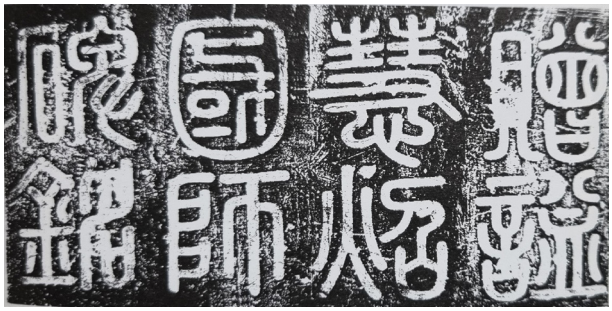
첫 번째는 이수 중앙에 3행 2자의 6자로 쓰여 있는 '圓覺國師碑銘'(원각국사비명) 제액이다. 이 글씨는 양각으로 새겨져 있고, 전서인 소전이다. 소전 양각은 11세기에는 전혀 보이지 않다가 12세기에야 반야사 원경왕사비와 영동 영국사 원각국사비 등이 뒤를 이었으나, 13세기 고려 후기에 들어서면 자취를 감추는 표제 기록 양식이다.[5]

'圓覺國師碑銘' 제액 글씨는 선봉사의 '천태시조대각국사비명'과 결구면에서 흡사한 점이 많다. 선질은 선봉사의 것이 당의 철선풍(鐵線風)인데 반해 이것은 후박(厚樸)한 가운데 예스러운 맛이 듬뿍 배어 있다.[6]

이 시기 대부분의 제액식 두전 양식에 쓰인 전서는 소전을 쓰고 있지만 자형이 정방형에 가깝다. 이전 글에서 얘기한 충주 정토사지 홍법국사탑비의 비신에 쓰인 장방형의 소전과는 자형이 다르고 획이 굵다. 이는 통일신라, 고려 초기의 선사탑비의 이수 제액에 나타나는 자형에 당전의 영향과 가로로 긴 편방형 장법의 영향으로 보인다.

5) 손환일 외, 『한국 서예문화의 역사』, 국사편찬위원회, 2011, 156쪽.
6) 채용복, 앞의 책, 76쪽.

〈비로사진공대사보법탑비
(毘盧寺眞空大師普法塔碑)〉(939)
崔彦撝 撰
李桓樞 奉敎書幷篆額 崔煥規 刻



〈칠장사혜소국사비(七長寺慧炤國師碑)〉(1060)
金顯 撰 閔賞濟 奉宣書幷篆額 裴可成 李孟 刻

제액식 두전에 쓰인 주변 문양은 편액의 변죽과 같이 보상화문이나 인동문 같은 화려한 문양으로 장식하거나 계선을 두른다.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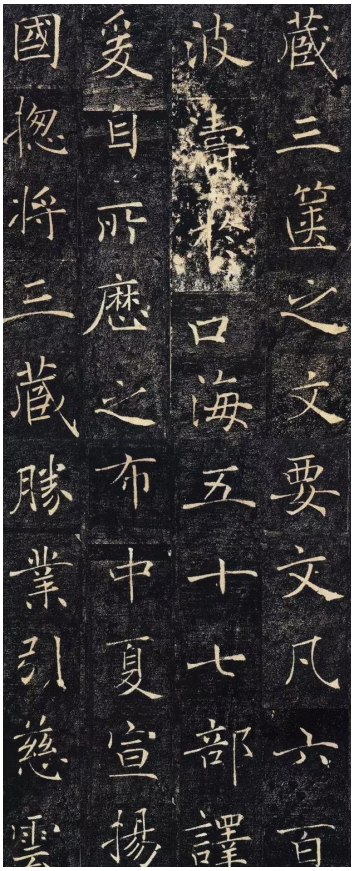
이에 반해 이수 제액인 '원각국사비명'은 굵은 소전의 획과 같은 계선만 두른 소박한 양식이다. 각 글자의 결체는 둥글 '圓'(원) 자가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의도했든 안 했든 6자 모두 타원형의 결구다. 서체는 이양빙 풍의 소전으로 기필, 행필, 수필을 모두 원필로 쓰고 있어 혼후하고 굳센 필력으로 둥글고 윤택하며 입체감이 느껴지는 서자의 독특한 창의적인 소전이다.

두 번째, 비양의 서체는 행기가 있는 해서이다. 비가 훼손되어 찬자, 서자, 각자와 건립 연대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동국여지승람』과 『대동금석고』에 의하면 찬자는 한문준이며, 건립 시기는 명종 10년임을 알 수 있다. 비문 3행에 써야 할 글씨를 쓴 사람의 관직명과 서자를 쓰지 않고 비 본문이 시작되고 있어 한문준이 글을 짓고 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행 한문준의 "지제고(知制誥)" 라는 관직은 국왕의 조서(詔書)와 교서(敎書)를 작성하는 일을 맡았는데 한림원과 보문각의 관리들이 겸임하였다 8) 는 것으로 보아도 글씨를 쓴 사람은 비문을 지은 한문준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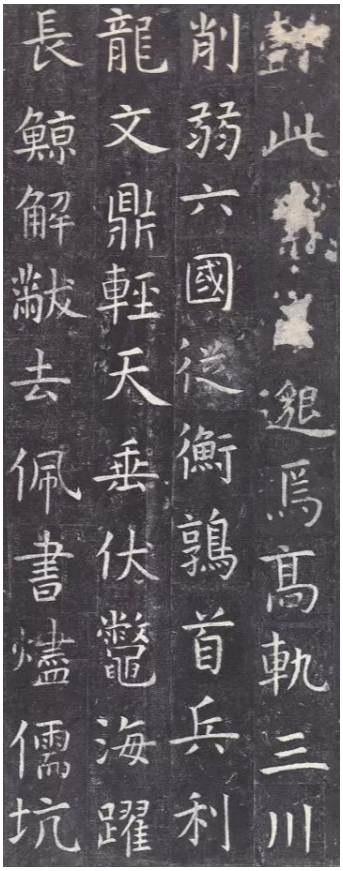
7) 손환일, 앞의 책, 161쪽.
8) 국가유산지식이음 (https://portal.nrich.go.kr)

전체 장법은 정간선은 없으며 행간과 자간은 정연하고, 비신 둘레에 당초문을 장식하였다. 이전 대부분의 선사탑비의 서체가 구양순 일색의 해서풍이었다면 원각국사비문의 자형은 전체적으로 정방형이지만 일부분 편방형도 있다. 행기가 있고, 전절의 부드러움과 향세로 인해 유연하면서도 외유내강(外柔內剛)형의 결구 형태이다. 전체 장법상 분위기는 저수량의 <안탑성교서>, 우세남의 공자묘당비문, 그리고 사경풍을 연상시키면서도 결구와 장법은 훨씬 짜임새 있고 활달하다.

〈영동 영국사 원각국사비〉
비양 탁본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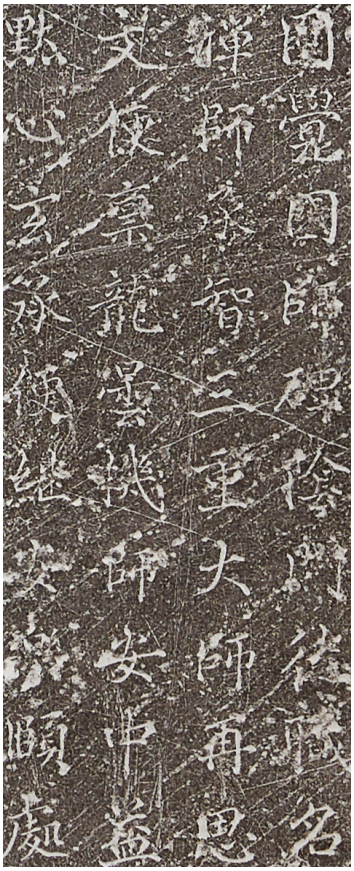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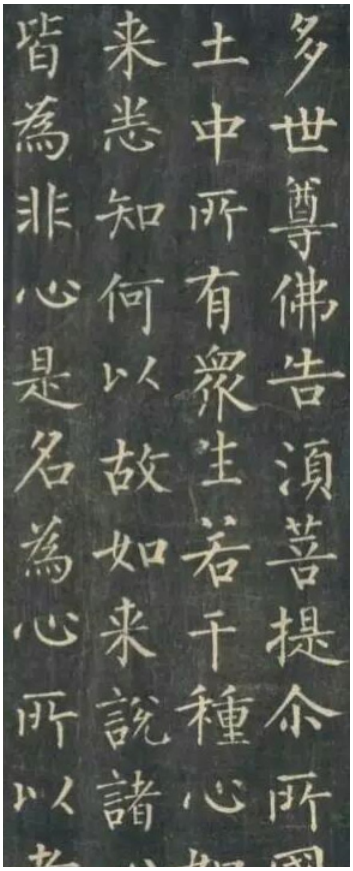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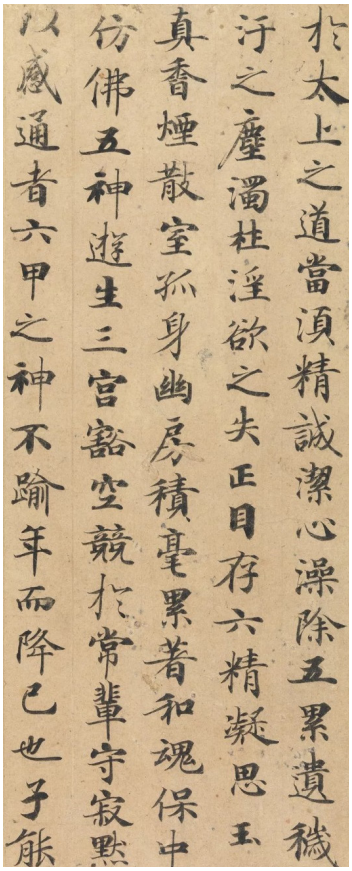
〈안탑성교서(雁塔聖敎序)〉(653)
당(唐) 저수량(褚遂良)



〈공자묘당비(孔子廟堂碑)〉
(633) 당(唐) 우세남(虞世南)

사경서풍은 장방형인 수·당의 비각 해서와는 달리 정방형이나 편방형이고, 대부분 기필보다 수필이 더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9] 결구는 산만하지 않고 원만하고, 필세는 부드럽고 아름답다. 점과 필획은 방필과 원필을 섞고 있으나 원필이 많아 둥글고 파리하면서도 기필에서 필봉이 예리하여 강한 골기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예술적 특징은 당나라 초기의 우세남과 저수량 풍의 해서 필의가 나타나고, 구양순과 안진경의 영향을 받은 유공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가로획과 세로획을 같은 굵기로 고르게 쓰면서 파리하나 굳센 획이 되도록 하였다.

		
〈영동 영국사 원각국사비〉 비음 탁본 부분	〈금강경각석(金剛經刻石)〉 (824) 당(唐) 유공권(柳公權)	〈영비경(영비경)〉 (738) 사경 당(唐) 종소경(鍾紹京)

가로획에서는 기필처를 방필로 시작하여 칼로 자른 듯 험절하고 행필은 속도감 있는 유연한 운필로 나아가 수필에서 필봉을 굴러 원필로 무게감 있게 붓을 거두고 있다. 이는 파리하고 연미하면서도 강한 필력은 저수량의 굳세고 유연한 필세이다. 구양순의 모난 필획, 안진경의 둥근 필획을 조화시킨 유공권과 저수량의 유연하면서 강한 필세가 드러나고 있어 필치가 상쾌하면서 예리하다. 이것으로 보면 서자는

9) 정현숙, 『신라의 서예』, 도서출판 다운샘, 2016, 220쪽.

당나라 초기의 해서풍을 수용하고, 유공권까지 받아들여 소화하고 그들의 글씨와 닮은 듯 닮지 않은 활달한 필치를 보인다. 비음도 비양과 같은 필세로 같은 사람의 글씨이며, 비양보다는 원각국사의 문도의 직명을 쓴 비음에서 자신감 넘치는 필획의 꿈틀대는 생동감을 표현하려는 서자의 심미의식을 느낄 수 있다.

보은 법주사 자정국존비

보은 법주사 자정국존비(報恩 法住寺 慈淨國尊碑)는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405번지 법주사 내 미륵대불상 서쪽 암벽에 있다. 1980년 충청북도 유형문화유산 제79호로 지정되었다. 비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정국존의 속성은 김 씨이며, 법휘(法諱)는 자안(子安)이었다가 미수로 바꿨다. 13세에 출가하여 19세에 승과에 합격하고 29세에 삼중대사에 올랐고, 충숙왕 11년(1324)에 국존에 책봉되고 충숙왕 2년(1325)에 참회부(懺悔府)를 설립하여 승정(僧政)을 담당하고 오교(五敎)와 이종(二宗)의 사사(寺舍)를 관리하였다. 웅신사, 장의사, 법주사, 중흥사, 유가사, 민천사, 동화사 등에 주석하며 92권의 경론 주해를 찬술하였다. 말년에 법주사에서 머물다 입적(세수 88세, 법랍 75세)하였다. 왕은 애도하면서 시호(諡號)를 '자정국존(慈淨國尊)'이라 하고 탑명을 '보명(普明)'이라 추증하였다.

보은 법주사 자정국존비는 충혜왕 3년(1342)에 건립되었다. 기존의 다른 선사탑비들과 달리 특이하게 귀부와 이수가 없고 자연 암반을 파내고 비신만 들여앉혔다. 마애(摩崖)에 흔히 글씨를 새기는 방식에서 착안한 듯하나 새로운 양식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10] 마애각석을 연상시키는 비의 높이는 214cm이며 너비는 107cm의 측면 24cm의 화강석으로 비신 가장자리에 테를 두르고 당초문을 둘러 장식하였다. 비신 하단에는 연화문을 그려 비좌를 나타내고, 이수가 없는 비신 상단에 가로 1열로 '俗離山法住寺慈淨國尊碑'(속리산법주사자정국존비)라는 두전이 전서로 음각되어 있다. 비문은 총 27행에 각행 17자~64자로 총 1,300여 자이고, 글씨 크기는 2.1cm이다. 이숙기(李叔琪)가 짓고, 글씨는 전원발(全元發, ?~?)이 해서로 썼으며, 새긴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현재 비신은 중간 부분과 아랫부분 양쪽 모서리가 훼손되었으나 비문의 글씨가 뚜렷하고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보은 법주사 자정국존비 ▶
(출처: 충북아키비움)

보은 법주사 자정국존비 원경
(출처: 충북아키비움)

이 비가 세워진 시기는 고려 후기에 해당한다. 정치적으로는 원과의 밀접한 관계로, 고려 측에서는 왕 스스로 원의 수도를 빈번하게 왕래함에 따라 사절과 왕의 수행원으로 연경을 자주 출입하였다. 이를 통해 원의 학자나 관료들의 교류가 거듭되어 고려 후기 한문학의 발전과 서예에도 큰 진전을 보였다. 관리들의 잦은 왕래로 서책의 유입도 많아졌고, 새로운 사상인 성리학을 안향(安珦), 백이정(白頤正), 이제현(李齊賢,1287~1367) 등이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새로 수용된 문화는 개혁의 주체세력, 즉 신진사대부 사이에서 유행하였다.

원의 문화 수용 초기 글씨에는 과거시험 과정에서 스승이 직접 지도하며 교본으로 사용하던 서첩의 영향이 지대했다. 특히, 충선왕(1275~1325)이 연경에 만권당(萬卷堂)을 설치하고(1314) 이제현 등

10) 박문현, 앞의 책, 44쪽.

신진사대부들이 머물며 당시 서가의 제일인자인 조맹부(趙孟頫,1254~1322)와 당대의 학자 요수(姚燧), 염복(閻復), 원명선(元明善) 등과 교유하게 함으로써 주자 성리학이나 송설체의 진수를 직접 전수(傳受)했다. 이 때문에 조맹부의 서적이 이 시기에 대량으로 수입되어 고려 말에서부터 조선 초에 이르는 약 200년간 조맹부 서체가 유행하였다.[11]

한편, 공민왕은 이부광(李簿光)의 설암체(雪菴體)를 본받아 많은 편액을 썼고 이에 이른바 액체(額體)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그래서 편액이나 주련에는 모두 액체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그 후 600년 동안 지속되었다.[12] 이 시기의 대표적인 서예가로는 춘천 청평사 문수사장경비(1327) 비문을 조맹부 풍으로 쓴 행촌(杏村) 이암(李嵒,1297~1364), 보은 법주사 자정국존비(1342) 비문을 쓴 전원발, 경기 양주 회암사 선각왕사비(1377) 비문을 예서 장천비 풍으로 쓴 권중화(權仲和,1322~1408), 경기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석종비 비문을 구양순 풍으로 쓴 한수(韓脩,1333~1384), 경기 고양의 태고사 원증국사탑비(1385) 비문을 구양순 풍으로 쓴 권주(權鑄,?~1394) 등이 있다. 이암은 철저한 소전을 구사한 명필로 태종무열왕릉비의 제액 이후 최고의 명작을 남겼다. 하지만 이 시기 비의 양식, 형식, 서체 등이 다양하지 못함으로써 서예사에서는 이 시기를 쇠퇴기로 보기도 한다.[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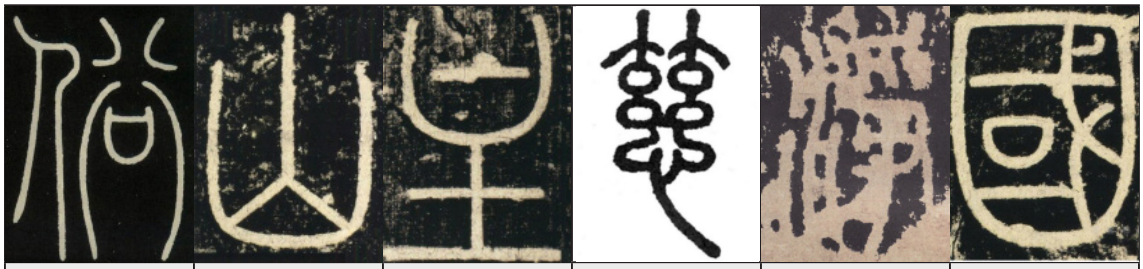
보은 법주사 자정국존비 비문을 쓴 전원발은 본관은 용궁(龍宮)이며 호는 국파(菊坡)로 고려 말기에 원나라에 가서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병부상서 집현전 태학사에 오르고 영록대부(榮祿大夫)가 되었다. 뒤에 귀국하여 축산부원군(竺山府院君)에 봉해졌으며 서예에 뛰어났던 문신이다. 그가 쓴 비의 제목인 비신의 두전과 해서를 서체 비교를 통해 서풍의 연원을 살펴보자.

두전은 비문 세 번째 행에 '전원발이 교지를 받들어 비문과 함께 전액을 썼다.(全元發奉敎書幷篆)'라고 밝히고 있어 그의 글씨임을 알 수 있다. 두전은 음각으로 오른쪽부터 차례로 '俗離山法住寺慈淨國尊碑'(속리산법주사자정국존비)라는 11자의 소전으로 비신 상단에 한 줄로 새겨져 있다. 글자는 마모 없이 선명하게 남아 있어 서체를 살펴볼 수 있다.

11) 손환일, 앞의 책, 162~164쪽.
12) 손환일, 앞의 책, 14쪽.
13) 손환일, 앞의 책, 165쪽.

〈보은 법주사 자정국존비〉 탁본 비신의 전액 두전

음각 두전은 고려 후기인 13세기에는 보이지 않다가 14세기에 나타나는데 그중 하나가 보은 법주사 자정국존비다. 이후로 두전 양식이 유행되었다. 두전의 소전 서풍은 당 이양빙의 전서가 주류를 이루며, 진나라 이사와 설문해자의 소전을 혼용하고 있어 전원발이 전서에도 천착하였음을 전액을 통해 볼 수 있다. 이양빙의 전서를 옥저전 또는 철선전이라고도 하는데 당전의 유행을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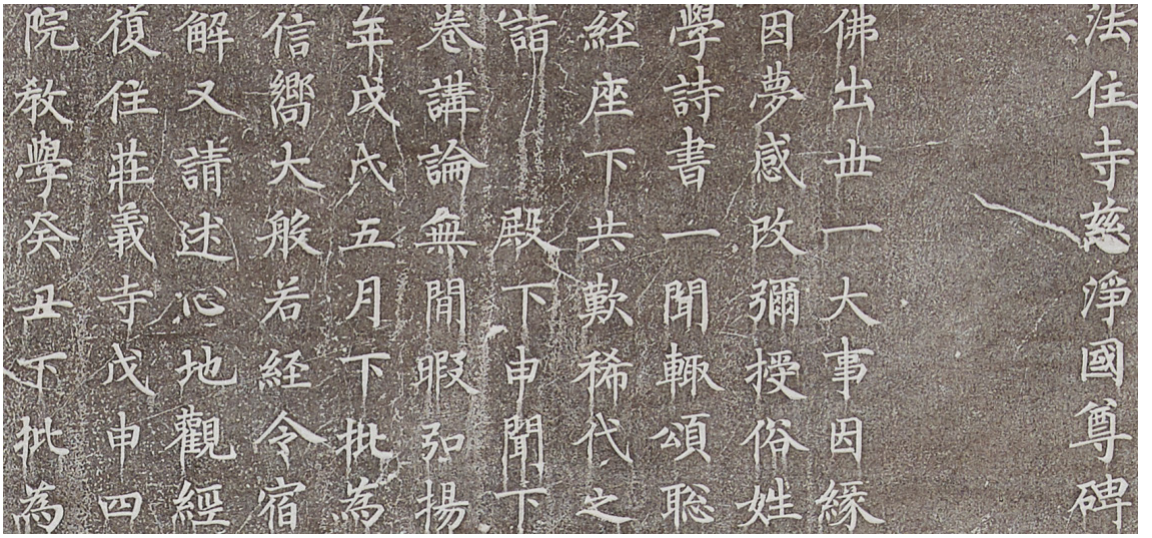
(俗) 이양빙	(山) 이양빙	(住)의 主 이양빙	(慈) 설문해자	(淨) 이사	(國) 이양빙

이양빙의 전서는 형태·정신·기운[形·神·韻]이 모두 범상치 않다. 대서예가인 안진경도 당시 사람들에게 비문을 써주면서 이양빙의 전서로 제액을 삼으면 더욱 아름다울 것이라고 하였으며, 그가 쓴 소전의 특징은 둥글고 활발하면서 아름답고 기골이 굳세면서 단정하다는 것이다.[14]

보은 법주사 자정국존비문은 두전의 결구가 소전 특유의 길쭉한 장방형으로 글자의 위쪽은 비교적 빽빽하지만 필획 사이의 공간은 매우 고르고 아래는 길쭉하게 펴서 획은 성글게 하고 나란히 맞추지 않았다. 좌우는 대칭을 이루는 가운데 시원하고 청경한 미감을 느낄 수 있다. 글씨의 획이 시작되고 끝나는 기필처와 수필처가 중봉으로 둥글게 하여 태세 변화가 거의 없는 소전으로 필획의 선질이 굳건하여 수준 높은 서사력을 볼 수 있다. 전절처가 원만한 소전의 획법을 유지하면서도 활달하고 거친 면은 보이지 않아

14) 곽노봉, 『서예가열전』, 도서출판 다운샘, 2005, 141쪽.

필획이 둥글고 강건하여 숙련되고 성숙한 느낌으로 안정감이 있다.[15] 전원발은 전액 두전에 이양빙을 위주로 이사, 설문해자의 소전을 수용하여 자신만의 개성이 드러난 전서를 썼다고 할 수 있다. 용필을 말하자면, 필획은 솜으로 철선을 감싸고 있는 것 같으며, 행필은 누에가 실을 토하듯(篆書用筆須如綿裏鐵 行筆須如蠶吐絲) 유연하면서도 굳세고 아름다운 자태를 보이고 있다. 전액 두전 중 문수사장경비문에 버금가는 명품이라 해도 손색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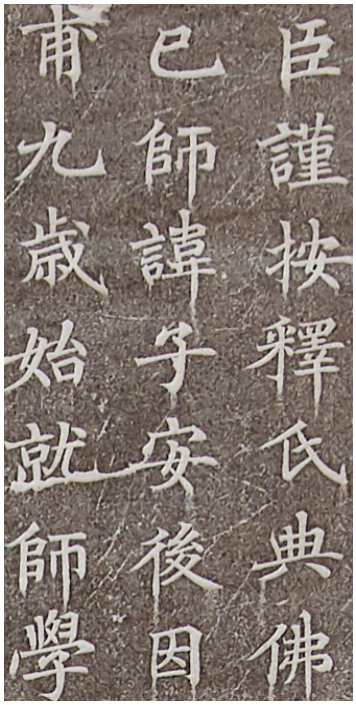
〈보은 법주사 자정국존비〉 탁본 부분

비신의 글씨는 이전에 많이 쓰인 선사탑비의 서체와 서풍과는 달리 색다른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전원발의 단아하면서 수려한 해서체이다. 정간선은 치지 않았으나 행간과 자간이 분명 하며, 처음부터 붓을 놓을 때까지 한 점 한 획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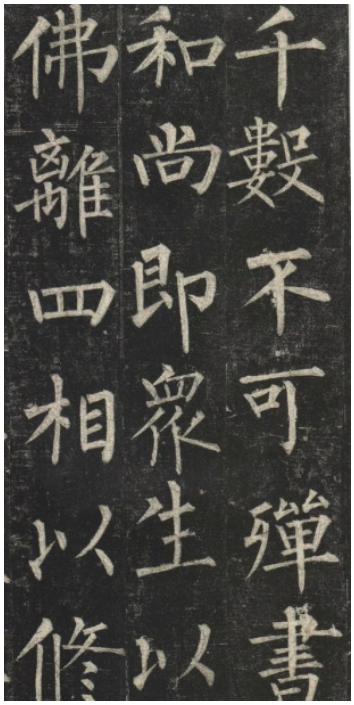
자형은 전반적으로 정방형과 편방형의 결구인데, 가끔은 장방형을 혼용하고 있다. 이러한 자형의 결구법은 앞에서도 서술하였지만 사경 장법에 사용되는 자형 결구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고려 말기에는 유공권, 안진경의 서법을 배워서 그것이 사경에 응용되었으며, 금석에도 한수, 권주 등이 이름을 떨쳤고 자정국존비 비문을 쓴 전원발도 예부터 전해오는 사경가의 전통을 이어받은 대가였다.[16] 글자의 결체에 있어서는 점·획은 기필과 전절, 수필을 원필 위주로 썼으며 때론 기필과 전절 부분에서 방필로 강건한

15) 박문현, 앞의 책, 5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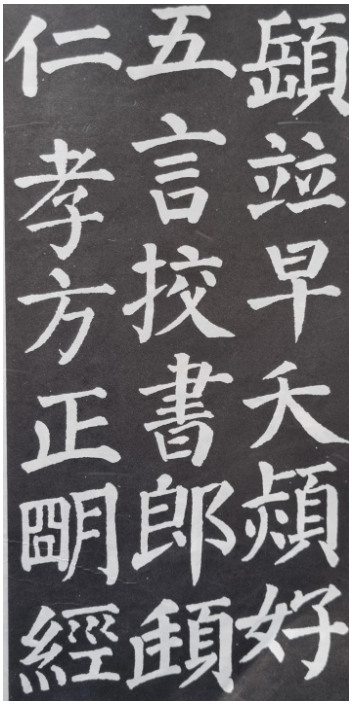
필획을 드러내기도 한다. 점과 세로획, 삐침의 획에서는 유공권의 기필을 사용하고 있다. 대체로 원필과 향세로 인한 부드러움이 많아 향세로 대표되는 안진경의 근이 많은 풍후한 필의와 유공권의 근골 있는 향세의 필세를 조화시킨 전원발의 개성 있는 해서이다. 이는 안근유골(顔筋柳骨) 서풍의 전형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부분적으로 안진경의 골격을 지닌 유려한 필치의 명품이다." [17]



〈보은 법주사 자정국존비〉



〈현비탑비〉 유공권



〈안근례비〉 안진경

그리고 여러 획 중 파임(乀)과 창 과(戈)의 우사구(右斜鉤)에서 안진경과 유공권과는 달리 파임은 시원하게 더 길게 출봉(出鋒)하고, 우사구도 더 길게 하여 갈고리를 만들어 초당 시기 우세남의 필세도 나타난다. "그의 필치는 조법도 아니고 고려 재래의 서풍도 아니지만 범속하지 않다." [18] 전원발은 『법화경』 「권발품」의 "법화경을 서사하면 도리천(忉利天)에 태어날 수 있다." [19] 는 공덕을 쌓는 마으로 그 당시에 유행하였던 사경풍의 해서를사용 '자정국존비'에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6) 임창순, 『고려말 조선초의 서예』, 예술의전당, 1996.
17)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

이상으로 <보은 법주사 자정국존비>를 쓴 전원발의 서체를 두전과 비문의 글씨를 통해 살펴보았다. 두전은 전서 소전으로 장방형의 결구에 역입 장봉으로 기필, 행필, 전절, 수필을 모두 중봉 용필로 운필하여 둥글면서 골기 있는 아름다운 선질을 나타내고 있다. 필획의 안배는 고르고 길쭉하여 시원하고 청경한 미감이다. 부드러우면서도 굳세고 유연하여 철선에 솜을 감싼 듯 누에가 실을 토해내듯 쓴 전원발의 개성을 유감없이 나타내고 있는 훌륭한 소전 작품이다. 비신의 글씨는 해서로 사경풍의 정방형과 편방형 결구에 안진경과 유공권의 해서를 수용하여 안근유골의 장점을 취한 당시의 사경풍의 해서로 볼 수 있으며, 원필과 향세의 부드러운 필획은 살찌지 않고 방필의 강건한 필획을 조화시킨 세련되고 유려한 전원발 자신만의 창의적인 자가풍의 해서를 만들고 있다.

18) 김응현, 『동방서예강좌』, 동방연서회, 1995, 250쪽.
19) 손환일, 앞의 책, 177쪽.

〈참고문헌〉

곽노봉, 『書藝家列傳』, 도서출판 다운샘, 2005.

김응현, 『동방서예강좌』, 동방연서회, 1995.

박문현, 「충북지역의 고려석비 양식변천과 비액 서체연구」, 『충북학』 16, 2014.

손환일 외 『한국 서예문화의 역사』, 국사편찬위원회, 2011.

손환일, 『한국 금석문의 두전』, 서화미디어, 2011.

임창순, 『고려말 조선초의 서예』, 예술의전당, 1996.

정현숙, 『신라의 서예』, 도서출판 다운샘, 2016.

채용복, 「고려중기 서예의 연구」, 『한국서예2천년』, 예술의전당, 2000.

葛城末治, 『朝鮮金石攷』, 国書刊行會, 1974.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

국가유산지식이음 (https://portal.nrich.go.kr)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연원도(連原道) 따라가기·5

7월, 한여름에 천 년 묵은 봄을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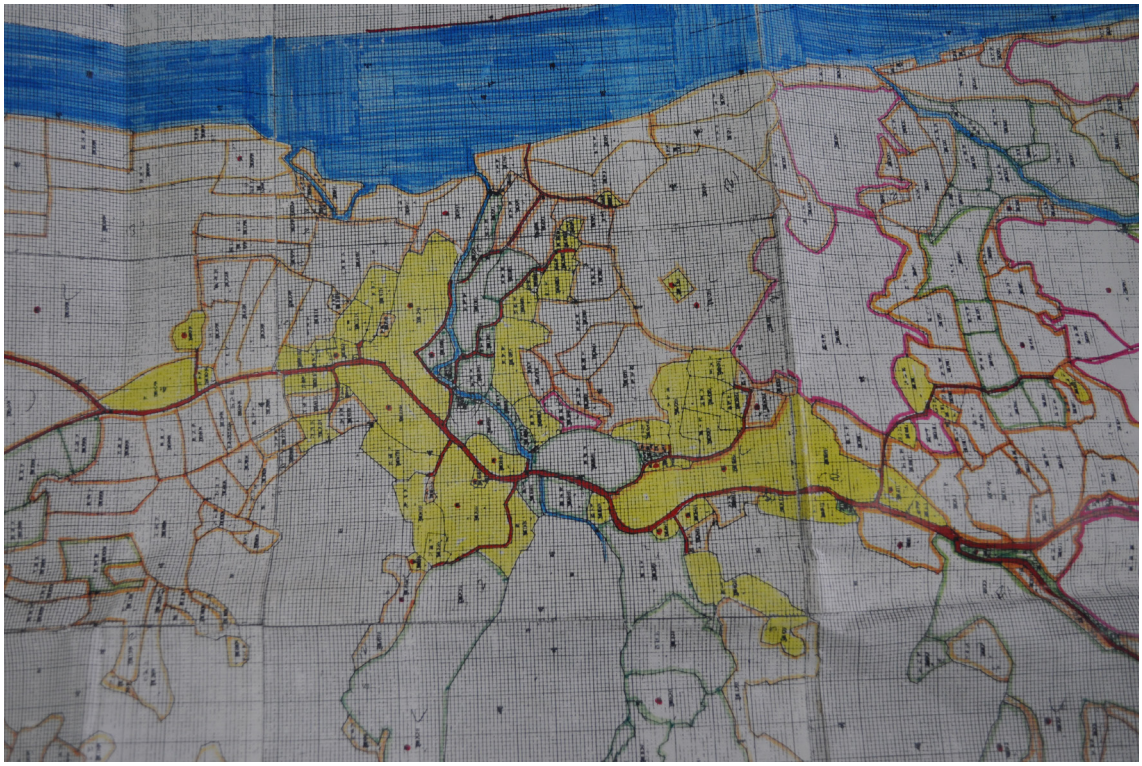
김희찬(예성문화연구회)

2024년 7월 20일(토), 흐림.

다섯 번째 길은 연원도 서북쪽 방면이다. 가흥역을 시작으로 경기도 안성(옛 죽산현) 죽산에 있었던 분행역(分行驛)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다. 여름이라 더위를 걱정했지만, 오히려 궂은 날씨에 비를 걱정해야 했다. 아이 다섯에 어른 여덟. 열세 명의 일행이 길을 나섰다.

역명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여지도서(1759)	비고
가흥역 可興驛	① 가흥역(嘉興驛) : 주 북쪽 30리에 있다.(在州北三十里) ② 가흥창(可興倉) : 가흥역 동쪽 2리에 있다.(古稱德興倉, 又稱慶原倉. 在嘉興驛東二里. 舊在金遷西崖, 世祖朝移于此. 收慶尙道諸邑及本州 · 陰城 · 槐山 · 淸安 · 報恩 · 丹陽 · 永春 · 堤川 · 鎭川 · 黃澗 · 永同 · 淸風 · 延豐 · 靑山等官田稅于此, 漕至京師, 水路二百六十里. [新增] 舊無倉舍, 今上十六年, 始構屋, 凡七十間.) ③ 가흥참(嘉興站) : 가흥역(嘉興驛) 옆에 있다.(在嘉興驛傍) [신증]	① 可興驛 : 連源所屬. 在縣北三十里. 奴六十一名, 婢四十一名, 騎馬二匹, 卜馬五匹. ② 可興倉 : 在縣西三十里, 可興面. 本縣 · 陰城 · 槐山 · 淸安 · 淸州 · 鎭川 · 延豐等邑田稅, 差使員三月內收捧于此倉, 傳授水站判官, 漕至京師. 一百十九間. ③ 可興撥站 : 在縣西三十里, 自林烏站相距三十里. 撥長 · 撥軍 · 加給布上同. 以騎兵中責立.	충주목 (연원역 속역)
임오발참 林烏撥站		林烏撥站 : 在縣西六十里, 卜城洞面, 京畿陰竹站相距三十里. 撥長一人, 撥軍五十四名, 加給布四十匹二尺. 以騎兵中責立.	충주목 복성면
분행역 分行驛	분행역(分行驛) : (죽산)현 북쪽 10리 지점에 있다.(在縣北十里)	分行驛 : 在府東五里. 馬七匹, 奴婢十四名.	죽산현 (양재역 속역)

들를 곳은 간단하지만 가흥역 자리만 찾았기 때문에 다른 곳은 확인하며 살펴야 한다. 그리고 가흥처럼 여러 가지 시설이 복잡하게 얽힌 곳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하나 구분해 보아야 하는 문제도 있다.



가흥 지적원도: 오른쪽이 상가흥(가흥창), 왼쪽이 하가흥(가흥역), 강가의 움푹 들어온 곳은 가흥포구

가흥역, 가흥창, 가흥발참, 가흥수참

9시에 출발해 처음 들른 곳은 가흥이다. 가흥은 조선 시대에 육운과 수운이 교차·공존했던 곳이다. 그럼에도 학술조사와 고증은 물론 남은 유적이 없기 때문에 주목받지 못하는 곳이기도 하다.

① 가흥창

농협 가흥지소 마당에 버스를 주차했다. 그 자리는 예전에 가흥창이 있던 곳이다. 지금은 상가흥(上可興)으로 불린다. 창과 관련된 어떤 시설도 흔적도 없지만 몇 가지 자료를 검토해 종합한 결과 농협지소 자리가 가흥창의 중심 공간이다.

가흥창은 충청 좌도와 경상도 북부 지역의 세곡을 수납하고 서울로 운반하는 일을 도맡았던 곳이다. 1465년(세조 11)에 금천창을 옮기면서 개설되었다, 1461년(세조 7)에 금천창에 큰 화재가 있었고, 물살 거센 막흐레기 여울에서 세곡선이 파선되기도 하여 육로 수송이 가능하며 수로와 연결되는 지점이었던 가흥에 창을 설치했다.

농협 가흥지소-가흥창 자리

처음에는 세곡을 노적하다가 중종 16년(1521)에 창고 70칸을 지었고, 이후 109칸으로 확장하였다. 그 창고 시설이 있었던 곳이 농협지소를 중심으로 자리했었다. 그곳을 둘러보고 고개 너머로 가서 가흥 포구의 위치를 가늠하고 되돌아 나왔다.

가흥창의 관리는 수운판관(水運判官)에게 맡겼다. 그래서 가흥에는 경기도 좌수참(左水站)이 설치되었다. 운반된 세곡의 관리는 물론 세곡선의 운용과 관리를 수운판관이 도맡았다.

김종직(金宗直, 1431~1492)은 1465년에 영남 병마평사(嶺南兵馬評事)로 재직했다. 그해 경상도 북부 지역의 세곡 운반 책임을 맡았던 차사원(差使員)으로 가흥에 왔을 때 지은 시가 있다. 가흥창에 첫 세곡을 수납하던 때이다.

가흥참(可興站)

우뚝이 솟은 저 계립령은	嵯峨鷄立嶺
예로부터 남북의 한계가 되었는데	終古限北南
북쪽 사람 호화로운 생활을 탐하여	北人鬪豪華
남쪽 사람 기름과 피를 달게 먹네	南人脂血甘
달구지로 험난한 산길을 지나	牛車歷鳥道
밤에 강 마을에 자리 깔고 누우니	江干夜枕藉
아전들은 어찌 그리도 탐학한고	吏胥何婪婪
시장에선 생선을 가늘게 회치고	小市魚欲縷
모점에는 술이 뜨물처럼 하얀데	茅店酒如泔
돈 거두어 노는 계집 불러오니	醵錢喚遊女
머리 꾸미개에 연지를 발랐네	翠翹凝紅藍
백성들은 심장을 깎는 듯 괴로운데	民苦剜心肉
아전들은 방자하게 취해서 떠들어대며	吏恣喧醉談
또 두곡의 여분까지 토색을 하니	斗斛又討嬴
조사는 의당 부끄러울 일이로다	漕司宜發慚
관에서 부과한 건 십분의 일인데	官賦什之一
어찌하여 이분 삼분을 바치게 하나	胡令輸二三
강물은 스스로 도도히 흘러서	江水自滔滔
밤낮으로 구름과 남기를 부는데	日夜噓雲嵐
배 돛대가 협곡 어귀에 그득히	帆檣蔽峽口
북쪽에서 내려와 다투어 실어가니	北下爭驂驔
남쪽 사람 얼굴 찡그리고 보는 것을	南人蹙頞看
북쪽 사람 누가 능히 알겠는가	北人誰能諳

- 김종직, 『점필재집(佔畢齋集)』 시집 권4, 시

이 시의 제목인 가흥참은 수참을 의미한다. 첫 세곡을 수납하던 상황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특히 구실아치들의 탐학과 그것에 눈감는 조사(漕司)를 꾸짖고 있다. 그러한 탐학과 횡포가 언제까지 계속되었는지 모르지만, 첫 수납 때 상황이 이러하니 그 뒤야 물어볼 필요도 없다.

② 가흥역

김종직의 「가흥참」을 읽고는 걸어서 가흥역 자리로 향했다. 가흥창의 위치를 가흥역에서 동쪽 2리라고 기록했다. 그렇다면 가흥창에서 서쪽 2리가 가흥역이다. 그곳은 하가흥 마을회관이 있는 곳이다. 가흥역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는 시가 한 편 있다.

가흥역을 지나며(過可興驛)

한적한 세 집이 산모롱이 옆에 있어	蕭條三戶傍山曲
이름은 가흥인데 흥하지 아니하다	名是可興猶未興
잠깐 가는 말 멈추고 아전의 말 들으니	暫駐征驂聞吏語
백성 편케 하는 일 많은데 내 무능 부끄럽다	便民多愧我無能

- 송희경, 『일본행록(日本行錄)』

1420년(세종 2) 윤정월 15일에 일본으로 사행을 떠난 송희경(宋希璟, 1376~1446)이 가흥을 지나며 본 가흥역의 모습이다. 산모롱이 돌아 집 세 채가 가흥역인데, 그곳이 하가흥 마을회관 자리이다. 가흥역에는 남자 종 61명, 여자 종 41명이 일을 했고, 기마 두 필, 짐말 다섯 필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여지도서』에 적고 있다. 대마(大馬)가 없는데, 이것은 발참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다.

가흥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았다. 가흥 → 하담진 → 북진 → 연원역 → 충주 읍성으로 이어지는 역로에서 비중 있는 역이었다. 그리고 가흥역 옆에 발참이 있었다고 한다. 가흥발참은 충주를 지나던 파발

경로에서 수회발참 → 단월발참 → 가흥발참 → 임오발참으로 잇던 곳의 하나였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지점이 가흥이었다.

하가흥 마을회관-가흥역 자리

가흥은 역사적으로 육로, 수로상의 교통 물류의 중심이었다. 그런 가흥에 남은 기록 중에 여전히 풀지 못한 수수께끼가 하나 있다.

가흥창에 이르러 왜선을 보고(到可興倉對倭船)

왜선이 며칠 동안 번갈아 왕래하니	倭船數日迭相先
안개 자욱한 왜국의 해변에 닿은 듯하네	宛泊蠻煙海島邊
호와 월이 한 집안 된 것은 주나라 덕택이고	胡越一家周德澤
배와 수레 만 리 오감은 우 임금 산천이네	舟車萬里禹山川
몸에 걸친 화려한 옷은 교인이 짠 것이고	身章斕斒鮫人織
섬 오랑캐 말이어서 역관이 통역하네	音語侏儒譯使傳
내왕해도 잡거나 내치지 않으니	來去不須追且拒
하늘처럼 포용하는 성상의 교화에 감격하네	包荒聖化感如天

- 권호문, 『송암집』 권2, 시

권호문(權好文, 1532~1587)이 가흥에 들렀던 때는 1560년이다. 그래서 실록 등 기록을 살피며 가흥까지 왜선이 들어왔던 사실을 확인해 보았지만, 전혀 흔적이 없다.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긴 채 임오발참으로 향했다.

임오발참(林烏撥站)

임오발참은 임진왜란 이전의 기록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보이지 않는다. 『여지도서』에서 처음 확인되는데, 복성동면(福城洞面)에 있다고 하였다. 복성면은 앙암면(仰巖面)과 합쳐 앙성면(仰城面)이 된 곳이다. 앙암면이 강을 따라 있던 곳이고, 복성면은 가흥에서 장호원으로 이어진 길을 따라 있던 곳이다.

임오발참의 위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적원도를 통해서 추정하는 것으로 하여 앙성면소재지에서 버스를 세웠다. 용포리 용담 마을인데, 예전 면사무소 자리를 임오발참으로 추정해 보았다. 가흥발참에서 약 30리 거리가 되는데, 예전의 공용 시설이 지금은 마을회관이나 면사무소 등의 공용 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새로 지은 면사무소 길가에 세워 놓은 비석 몇 기를 살펴보고, 간식을 먹으며 잠시 쉬었다. 벌써 11시였고, 날이 좀 개는 것 같았다. 곧장 죽산 향교로 향했고, 향교 앞에서 점심을 먹었다.

앙성면사무소 앞에서 임오발참 자리를 가늠하다

죽산향교 앞에서 다음 일정을 살피다

분행역(分行驛), 천 년 묵은 봄

예전에 죽산현(竹山縣), 죽산부(竹山府)였던 그곳은 안성시 죽산면이 되었다. 다만 향교가 있어서 그 흔적을 짐작할 수 있다. 마침 죽산 향교 관리인이 살고 있는 집과 연결된 쪽문이 있어서 문을 열고 죽산 향교 명륜당 마당을 구경할 수 있었다.

죽산 향교를 보고 봉업사지(奉業寺址)를 둘러보았다. 고려 태조 왕건의 영정이 봉안되었던 절이라고 하는데, 당간지주와 오층석탑만 남아있었다. 발굴조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태평미륵이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태평미륵이 있는 곳은 예전에 태평원(太平院)이 있던 곳이라고 한다. 고려 시대 상황에서 원집을 관리하고 운영하던 주체가 절집이었음을 고려할 때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이다. 5.6m 높이의 미륵불이 커다란 돌갓을 머리에 얹고 있는 것을 보고, 그 길의 연장선에 있었을 분행역을 찾아 나섰다.

안성 봉업사지 당간지주

안성 태평미륵 앞에서

그러나 20일에는 분행역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분행역은 이름처럼 두 갈래로 길이 나뉘는 곳에 있었던 역이다. 하나는 진천 방면으로, 다른 하나는 충주 방면으로 길이 있었다. 21일에 분행역을 찾기 위해 다시 갔다. 1872년에 그린 <죽산현지도>와 1899년에 편찬된 『죽산읍지』에 있는 <죽산지도>, 1910년·1915년에 측도된 1대 5만 지형도, 그리고 1913년 5월 26일부터 6월 20일까지 측량한 죽산군 군내면 매산리(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지적원도를 들고 현장 확인을 했다.

분행역은 철저하게 파괴되었다. 분행역이 있었을 자리는 왕복 4차로의 고속국도가 지나며 역 공간을 추정할 수 없을 정도였다. 다만, 상구산 마을의 시내버스 정류장이 '분행'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어서 겨우 실마리가 되고 있다.

지적원도 분행역 부분

분행역에서 충주자사께 부칩니다(分行驛寄忠州刺使)

엊저녁에 영곡봉 앞을 지났는데	暮經靈鵠峯前路
아침에 분행역루 위에서 읊조립니다	朝到分行樓上吟
꽃은 벌의 터럭발짓에 붉은색 반쯤 토해내고	花接蜂鬚紅半吐
버들은 숨어있던 꾀꼬리 날갯짓에 초록이 짙어졌습니다	柳藏鶯翼綠初深
(그대와 마주했던) 동헌에 봄의 흥취가 무궁할 텐데	一軒春色無窮興
사절로 나온 몸이라 마음만 바빴답니다	千里皇華欲去心
머리 돌려 중원을 바라보니 사람은 보이지 않고	回首中原人不見
흰 구름 자욱하고 나무만 빽빽합니다	白雲低地樹森森

- 정지상, 『신증동국여지승람』 권8, 경기도 죽산현 역원조

이 시는 정지상(鄭知常, 1084~1135)이 지은 <영곡사(靈鵠寺)> → <단월역(丹月驛)> → <분행역기충주자사(分行驛寄忠州刺史)>로 연결되는 연작시이다. 특히 함련의 14글자에 잡아놓은 봄 풍경은 마치 고속카메라로 촬영한 것처럼 천년이 지난 지금도 꿈틀거린다. 시인의 예리한 관찰력이 돋보이지만, 봄의 절창으로 내 마음에 새기는 구절이다. 그것을 지은 곳이 분행역루이고, 그래서 분행역 현장에서 그 정경을 그릴 수 있을까 싶었는데, 분행역 자리를 찾은 것에 만족해야 했다.

어쩌면 연원도의 속역과 접속역 따라가기에서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가졌던 가흥이나, 가장 멋진 천 년 묵은 봄을 그린 분행역에 대한 기대가 컸던 일정이었다. 그러나 온전한 표시는 차치하더라도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현실의 벽에 부딪힌 하루였다. 다른 역도 비슷한 상황이라 더욱 안타깝다.

분행 시내버스 정류장

05. 문화유산 활용 현장

철학이 있는 삽질, <신항서원 휴休식識시대> 7년

김해숙(신항서원활성화사업단)

국가유산? 활용이 곧 보존

외람되지만 먼저 자랑으로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주시 용정동에 위치한 신항서원(莘巷書院)은 최근 국가유산 활용 부문에서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답니다^^. 쉽게 말해 요즘 유행하는 'K-푸드, K-컬처'처럼 국가유산 활용사업 부문에서의 K-브랜드라는 뜻인데요. 전국 500여 개의 '우리 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사업 중에서 특별히 10개를 선정하여 나라에서 인증한 셈이지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활발하게 사업을 펼쳐보라는 주문이자 격려입니다. 이 지면에 저희 사업이 소개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신항서원 휴休식識시대>는 '우리 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중에서도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사업' 부문에 속합니다. 다음은 국가유산청에서 밝히고 있는 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전국에 소재한 문화·자연·무형유산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각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결합하여,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기획된 사업이다."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각 지역의 향교, 서원과 배향 인물이 품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활용해, 향교·서원을 생기 넘치는 문화공간이자 인문정신과 청소년 인성을 함양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7년 전 2019년, 저희 신항서원활성화사업단(이하 사업단)의 첫 번째 할 일은 '왜 청주의 신항서원인가'였습니다. 신항서원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살리고 청주의 물적 인적 자원을 연결하여, 청주 문화의 플랫폼이 되게 하라. 또한 꽁꽁 닫혀있던 옛 서원을 21세기의 새로운 인문 정신이 꽃피는 생생한 공간이 되게 하라. 이것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처음에는 한편 두렵고 한편 설렜지만, 이 미션의 취지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시대의 변화를 직감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소중해서 박제되었던' 전통 문화공간은 이제 시민들의 향유 공간으로 새로 탄생해야 한다는 것, 최고의 '보존'은 바로 '활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맨땅에 헤딩! 여기 어디? 난 누구?

다 알다시피 한국의 서원은 세계문화유산입니다. 그러나 신항서원은 그런 우아함(?)과는 거리가 먼 문화유산입니다. 청주시 이정골 시골 마을에 있는, 주차장도 교육장도 변변하지 못해 모든 기반 시설이 취약한 공간입니다. 대개의 서원이 그렇듯 신항서원도 구한말 훼철되었다가 1957년 사당 한 채와 강당 한 채만 간신히 복원한 작은 공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자체가 그렇게 세월에 풍상을

겪고, 세태에 갇힌 공간에 새 숨결을 넣자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상 문화유산에 맞는 콘텐츠 개발이 이 사업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콘탠츠 개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한 발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번 '맨 땅에 헤딩'하는듯한 막막한 작업입니다. 그러나 세상 어느 콘텐츠도 하늘 아래 뚝 떨어져 저 혼자 생겨나는 법은 없습니다. 주어진 공간(조건)과 사람과 사건, 그 삼위일체가 바로 콘텐츠가 생성되는 시공간입니다. 사업단이 처음 신항서원에 왔을 때 서원 공간은 박쥐가 살 정도로 인적이 뜸한 곳이었습니다. 일 년에 두 번 춘·추계 제향 외에는 늘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주 사람들에게 신항서원이란 이름은 일부 역사문화 전문인들에게만 알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닫힌 공간에 사람들을 오게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곳을 세상 밖에다 알려야 한다는 것. 그 두 가지가 우리 사업단에게 부여된 막중한 임무였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콘텐츠 개발입니다. 이 문제는 지역 역사책만 들이판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업단은 콘텐츠 개발에서 몇 가지 철학은 갖고 싶었습니다. 첫째, 이 문화유산 사업을 성과 위주의 사업으로 대상화하지는 말자. 둘째, 수행단체의 사람들 각각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로 이 사업을 만들어 가자. 셋째, 지역의 정체성, 신항서원의 정체성, 그리고 현대 학교의 대안학교로서 시대의 정체성을 담자.

이런 요건을 하나하나 맞추다 보니 고민도 보다 선명해졌습니다. 먼저 '청주는 교육도시다? 서원은 학교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가르칠 수 있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고전랩낭송'을 '킬러콘텐츠'로 만들었고, 이후 이 프로그램은 신항서원의 시그니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강조할 것이 있습니다. 신항서원의 고전랩낭송은 시대와 사람과 공간의 합작품으로 탄생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사업단은 대부분 인문학 학인들로 구성된 인적 자원입니다. 평소 했던 고전 공부, 고전 읽기 방법인 '낭송'이 서원이란 공간과 딱 맞아떨어졌고, 지금 이 시대의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익숙한 랩 음악에 접목했다는 점이 성공 요인이 된 셈입니다. 어쩌면 이 과정이 그대로 인문학의 본질일 수 있겠지요. 콘텐츠를 개발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하던 공부가 바로 사업으로 확산되는 이 과정, 이게 바로 앎과 삶의 일치 아닐까요? 이는 실제로 수행 인력들의 성장과 사업의 성장에 큰 지렛대가 되었습니다. 여기 어디? 난 누구?라는 인문학적 질문이 그대로 프로그램이 되는 이 경험은 지금까지도 사업단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주제가 확실하면 변주는 얼마든 풍성하게 활용되는 법이니까요. 2021년 우수사업 첫 수상 때, "차별성과 디테일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도 바로 이 덕분인 듯합니다.

브리콜라주 생존력이 가져다 준 선물

앞서 말했듯이 신항서원은 입지 조건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주차장, 교육장 등등). 사업 2년 차에 사업단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전국을 강타한 코로나 때문입니다. 비단 우리만 그런 건 아니지만, 크게 두 가지 면에서 황망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첫째 수시로 집합 금지에 걸려 사업 진행이 힘들다는 점, 둘째 사업단 구성원들이 대개 도서관 강사들이어서 수입이 뚝 끊어졌다는 점. 그러나 위기는 기회도 함께 오더군요. 인문학 현장도 코로나로 막혀서 강의를 진행할 수 없자, '길 위의 인문학'에서 '우리 동네 인문 교육 자료 개발'이란 사업을 공모한 겁니다.

저는 사업단 친구들을 설득했습니다. '이참에 마을 자료를 수집해 보자. 우리에겐 일거양득이다. 프리랜서 강사에게 활동비가 마련되는 한편 문화유산활용사업의 원천 스토리 자료를 구축할 기회다'라고. 이 사업은 2년 차 사업으로 '길 위의 인문학' 탐방 프로그램으로 보장받게 되어서, 신항서원을 몰랐던 일반 시민들에게 신항서원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업 이외의 사업과의 연결은 문화유산 활용 업계에서는 이례적인 사례라며, 당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에서 크게 칭찬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술 용어로 이런 삶의 기법을 '브리콜라주' 생존법이라고 한다지요? 손에 닿는 재료를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예술 기법.

이 기법은 이후 사업단의 사업 확산에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다양한 계층의 수행 인력을 연결하는 데 이때의 경험이 큰 자산으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전국 수행 인력 교육 과정에 참석했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강사님이 쏘아 올린 화면에 익숙한 신항서원 사진들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모범 사례로 신항서원 휴休식識시대를 예시로 든 것입니다. 특히 마을 주민과의 돈독한 관계 맺음이 성공 요인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사업 수행 겨우 3년 차에 그런 칭찬을 받아 기쁘기도 했지만 제가 기뻤던 것은 사실 다른 몇 가지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첫째는 수년간 도서관 강사로 활동하던 수행 인력들이 '주말 근무'와 '야외 활동'이라는 악조건을 피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문화유산 활용 사업이 3D 기피 업종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신항서원 시그니처가 어린이·청소년·성인의 고전 인문 활동이었는데 그 수행 인력들이 난색을 표하는 위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입한 것이 바로 마을 강사 양성 과정입니다. 신항서원이 있는 이정골은 도심 주변의 시골 마을입니다. 주민 역시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이 주민들은 신항서원과 함께 몇십 년을 살아온 이정골 마을의 전문가입니다. 하여 이 전문 인력(?)을 바로 이정골 시골 푸드 강사. 이정골 막걸리 학교 강사, 장학교, 김장학교 등의 전통 음식 강사로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는 학원 일정에 빡빡한 도시 아이들과 달리 마을공동체 돌봄 교실의 어린이·청소년을 집중 교육하여 신항서원 청소년 예술단을 운영한 것입니다. 마을과 마을이 연결되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니 몇 년에 걸친 지속 사업이 되는 효과를 얻은 것입니다. 이 경험은 훗날 이정골 '어무니 다듬이 예술단', '이정골 풍물단' 등 주민 예술단을 창단시키는 씨앗 역할을 합니다. 이 성과 역시 2023년 말 우수사업 수상 이유가 됩니다. "마을과 함께 하는 사업"의 좋은 선례라며 국가유산청 지역소멸과에서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이후 <신항서원 휴休식識시대>의 식識-강사 그룹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인문학당-21세기 정신문화학교"와 "마을학당-21세기 생활문화학교"로서 다양한 세대와 계층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옛 서원이 새로운 학교로서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식문화사업 강사 그룹과

생활문화사업의 마을강사 그룹으로 다변화를 꾀한 결과입니다. 이 또한 위기가 기회가 된 브리콜라주 기법으로 터득한 생존법이지요^^.

돌아보니 '천일 삽질', 각 '천 일'마다 다른 삽질

2019년 사업 시작부터 2025년 올해까지,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21년 우수사업 수상 이후 연 3회 수상으로 2023년 말 신항서원 휴식시대는 명예의 전당에 올랐습니다. 충분히 잘 한다는 인정을 받은 셈입니다. 보통은 이 영광을 가지고 수행단체들은 문화유산 활용사업을 계속해 갑니다. 그런데 2025년 우리에게는 또 다른 큰 선물이 들어왔습니다. 국가유산 활용 '대표 브랜드 사업'에 신항서원 휴식시대가 선정된 것입니다. K-브랜드로서 격조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하라! 경쟁을 넘어 마음껏 기량을 발휘해 보라! 이는 앞으로 적어도 삼 년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열렬한 응원의 뜻입니다. 과분하지만 고마운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물론 충북 유일의 대표 브랜드로 지역의 <국가유산 활용 사업>의 대표 선수라는 책임감도 무겁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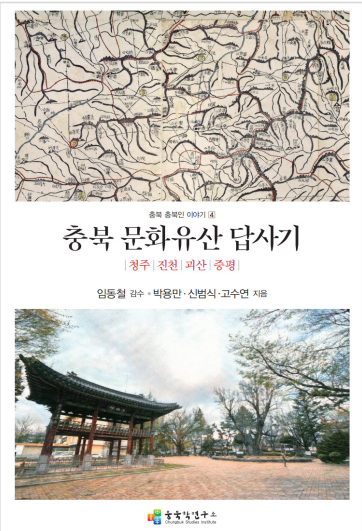
2025년 초,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 첫발을 떼면서 지난날을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보니 3년에 한 번씩 전환점이 있었다는 게 보였습니다. 첫 삼 년은 기존의 문화유산 활용사업과는 다른 디테일하고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 구축의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삼 년은 주민과 함께한 성과를 이루어 문화유산활용 사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은 이때 사업단의 공간도 아예 서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공간이 바뀌니 사업 콘텐츠가 급속도로 변하고 풍부해졌습니다. 이 또한 전국적으로 보기 드문 사례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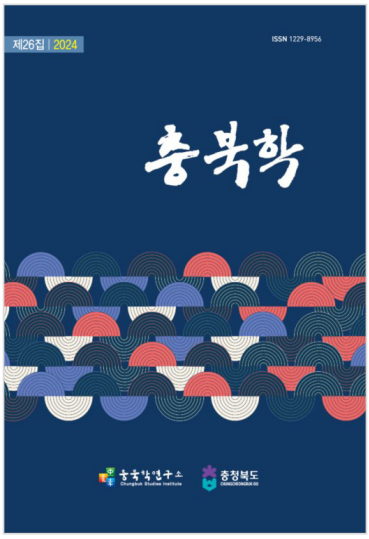
합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 우리는 <국가 브랜드-신항서원 휴식시대>로 새로운 삼 년 첫 발을 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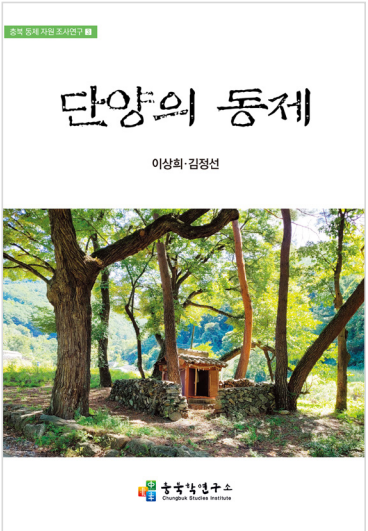
새로운 삼 년의 캐치프레이즈는 '여유와 치유가 있는 신항서원 휴休식識시대'입니다. 시민들은 아직 모르지만, 신항서원 주변 녹색 숲은 아주 훌륭한 힐링 장소입니다. 잘 생긴 소나무 숲과 산길은 신항서원의 또다른 보물입니다. 그리고 청주는 예로부터 교육 도시 청주의 정체성이 있는 고장입니다. 자연 숲이라는 물리적 공간과 서원이라는 정신 공간의 합치, 이러면 명실공히 신항서원은 여유와 치유가 있는 곳입니다. 하여 앞으로 3년, 우리의 과제는 이 자연 공간과 인문 공간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서, 신항서원을 청주의 '마인드 마크'로 만들 수 있을까?입니다(마인드 마크란 '랜드 마크'란 말에서 차용해 쓴 말^^). 지난 두 번의 3년이 그랬듯, 이 질문에 대한 답 풀이 과정이 국가브랜드로서 3년간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 충북학연구소 2024년 연구 성과 공유

충북학연구소(소장 임기현)에서는 2024년 연구 성과물로 학술지 『충북학』제26집, 충북 충북인 이야기4 『충북 문화유산 답사기-청주·진천·괴산·증평』, 충북 동제자원 조사연구3 『단양의 동제』 등 3권을 발간하였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이들 발간물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전국의 주요 도서관과 공공기관, 지역학 연구기관 및 관련 단체에 배부하였고, 충북학연구소 홈페이지 충북학자료실에 PDF파일을 올려놓아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2024년 충북학연구소 발간물

■ 충북학연구소 자문위원회의 개최

충북학연구소는 2월 24일(월) 오전 10시에 충북연구원 4층 중회의실에서 충북학연구소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자문위원으로는 김갑수(충북문화재단), 김상태(청주대학교), 김성대(충북도의회), 김양식(청주대학교), 김연준(기후회복실천문화원), 김현정(세명대학교), 어강석(충북대학교), 이해준(공주대학교 명예교수), 임승빈(청주대학교 명예교수) 등이 위촉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자문위원과 충청북도 문화유산과 관계자, 충북학연구소장과 연구원이 참석하여, 올해 연구소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충북도정 후마니타스 포럼 개최

충북학연구소는 지난 1월 22일(수), 3월 12일(수), 3월 26일(수) 오후 7시에 충북연구원 중회의실에서 충북도정 후마니타스 포럼 25-1, 25-2, 25-3을 개최하였습니다. 25-1은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 제2차 양자혁명”이라는 주제로 충북대학교 김기웅 교수의 강연으로 진행되었으며, 25-2는 “충북 경제정책의 비전과 방향: 포용적 제도 정립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노근호 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의 발제와 김범철(충북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김태옥(충북대 러시아언어문화학과 교수), 백성혜(한국교원대 화학교육과 교수), 이재희(중국정경문화연구원장) 등 전문가와 참석자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25-3은 “왜 소통과 참여인가: 주민 참여형 정책을 위한 소고”라는 주제로 황희연 충북대학교 명예교수의 강연과 참석자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충북도정 후마니타스 포럼은 올해 11월까지 매달 둘째, 넷째 주 수요일 오후 7시에 다양한 주제로 시민을 만나고자 합니다. 12월에는 한 해를 정리하면서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충북도정 후마니타스 포럼 25-1

충북도정 후마니타스 포럼 25-2

충북도정 후마니타스 포럼 25-3

■ 2025년 사업 계획

▶ 『충북학』 제27집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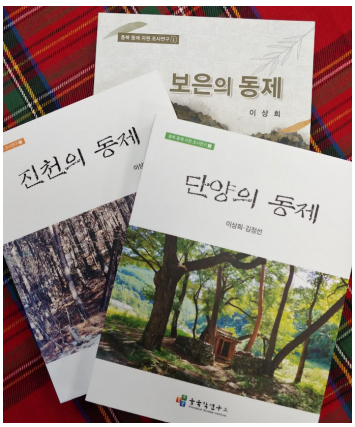
『충북학』은 매년 발간하는 충북학 연구지로, 순수학술지 겸 저널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충북학 연구 성과의 정리와 확산, 자료의 확보를 목적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총 26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올해는 제27집이 발간될 예정입니다.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원고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충북, 충북인 이야기 5

<충북, 충북인 이야기>는 충북의 역사, 문화를 자료뿐만 아니라 현장 답사와 구술을 통해 기록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노근리 사건의 생존자와 한국 군인으로서 전쟁에 참여하여 전사한 장교의 가족의 삶을 구술 기록하였습니다(2020). 두 번째는 충주댐 건설로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았고(2022), 다음으로 충북의 오일장을 돌아다니며 과거와 현재를 기록하였습니다(2023). 2024년부터는 충북을 세 권역으로 나누어 3년 동안 각각의 중요한 역사·문화의 현장을 돌아보며 전문가의 지식과 견해를 덧붙인 “충북 문화유산 답사기”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1차 연도(2024년) 중부권(청주, 진천, 증평, 괴산)에 이어 2차 연도에는 남부권(보은, 옥천, 영동)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충북 동제자원 조사연구

최근 20여 년 동안 민속 문화 가운데 하나인 동제가 급격히 쇠퇴하고, 농촌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로 동제의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 전역의 동제 전승 현황을 조사하고 정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22년(보은군)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2023년 진천군, 2024년 단양군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음성군 동제자원을 조사하여 충북 동제자원 조사연구 4 『음성의 동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 『충북학누리』 발간

『충북학누리』는 충북학연구소 웹진입니다. 계간으로 발행하며, 2024년 겨울까지 총 17호를 발간하였습니다. 충북학 유관기관과 수신 신청자에게 이메일로 발송하고, 충북문화재단 <문화이음창>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해 시민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8호~21호 4회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미 발간된 『충북학누리』는 충북학연구소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충북도정 후마니타스 포럼

인문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충북도민의 공감과 이해를 도모하고 도민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높이는 도정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2024년 10월 10일 충북도정 후마니타스 포럼을 창립했습니다. 2025년에는 충북학 관련 현안 및 충북도정 관련 주요 이슈를 주제로 11월까지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저녁 7시에 포럼을 진행하고, 12월에는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포럼에는 시민 누구나 신청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충북학이시습(忠北學而時習) 아카데미

충북학이시습 아카데미는 '충북학(忠北學)'과 배움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논어의 첫 구절 '학이시습(學而時習)', 학교를 뜻하는'아카데미'를 결합하여 만든 명칭이며, 연구소의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강의와 답사를 결합한 형태의 아카데미를 진행하여 충북의 과거와 현재를 도민과 공유하고 미래를 힘차게 도모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도 도민(중·고등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충북학이시습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북학
누 리

Chungbuk Studies Institute

충북의 정체성 구현과 지역문화 창달을 선도합니다

충북학연구소
Chungbuk Studies Institute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
전화 043.220.1161~3
홈페이지 http://csi.cri.re.kr